현대불교

제 78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음력 4월 13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성명 발표… '냉정한 심판 따를 것"

불교 등 종교계의 4대강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5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서'를 결의 · 발표했다.

성명서 채택은 중앙종회가 계류중인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안건이 종단 일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종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4대강은 국토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동맥이고 대정맥이다. 4대강에서 지금과 같은 공사가 계속된다면 아름다웠던 산하는 제 빛을 잃고, 수질은 급전직하로 떨어지며, 생태계 전반은 훼손되고 교란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종단과 사부대중은 생명살림과 대자대비심의 발로에서 무분별한 4대강 사업의 중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단은 정부에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국가재정 집행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의 수행자 · 불자로부터 냉정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앞선 14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성명서에서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4대강 습지와 강바닥이 포크레인으로 뭉개지는 현실에 심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을 그대로 두라.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 평화의 강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1일 전국의 사암에서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정몽준 · 정세균 · 강기갑 등 정당 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오성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지방선거에 불자 출마자 261명

조계종 중앙신도회 출마자 현황 발표… 서울시의회 불자회 구성 추진

6 ·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불자후보는 26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정책기획단은 5월 19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자 출마자 현황을 조사 · 발표했다.

불교정책기획단 발표에 의하면 불자 광역단체장 출마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민주당), 이계진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한나라당 ·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민주당),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진보신당), 박해춘 충청남도지사 후보(한나라당) 등 7명이었다.

기초단체장은 서울 용산구청장 지용훈 후보를 비롯한 70명, 광역의원은 서울시 부두완 후보 외 72명, 기초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송재석 후보 외 105명, 교육감 후보는 김복만 울산광역시 후보, 교육위원 후보는 서울시 이부영 후보 외 6명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비례대표는 제외됐다.

인물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 불교인재뱅크와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는 2010년 2월부터 예비후보를 조사한 뒤 그 중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를 추려 발표했다.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자료는 불자사회네트워크 구축과 서울시의회 불자회 구성 등 신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확인과정을 거쳐 불교인재뱅크에 기록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신계사 등 北 사찰에 양초 지원

민추본, 조불련 중앙위원회에 17일 전달

정부의 대북 지원 차단 조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에 2600여 만원 상당의 양초와 향을 지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 17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에 양초 200box(100개/1box), 향 20box(100갑/1box)을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민추본의 예산으로 지원된 향과 초는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조불련 사찰에 전달된다.

또 민추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해 동시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남북불교교류 사업을 추진해 온 민추본은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한민족 역사 문화 통일 순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간화선 철학적 조명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5월 28일 오전 9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봉축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현각 스님이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주제발표에는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이 '시간과 실재-청송 고형곤의 존재론' 등을 발표한다. (02)2260-8507 조동섭 기자

"우리 모두 부처로 태어납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남북불교도 평화통일 공동발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와 전국의 2만여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각 사찰의 법요식마다 남측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낭독돼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관한 조계사 법요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와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 한스울리히 자이트 독일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명고 · 명종의식으로 시작돼 도량결계의식, 육법공양의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관불 및 마정수기, 헌화, 헌촉, 헌등, 헌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의 축원과 제7회 불자대상 시상, 총무원장스님의 봉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종정예하의 법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과 봉축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故한주호 준위 · 탤런트 한혜숙 · 조용석 前 대불련회장에게 불자대상을 수여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다름의 천태만상 속에서 같음의 공유면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융화합의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 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불교의 지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녹색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밝히고 "얽매임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해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보선 스님이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토가 될 때까지 남과 북의 사부대중은 불국정토를 향하여 발걸음 맞추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험난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물러섬 없이 우리 손으로 상호존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장으로써 발원에 동참했다.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봉축발원문을 통해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내 안의 어둠과 어지러움을 진정으로 밝히는 지혜의 힘을 얻어 소외된 이웃, 억압 받는 민중들, 가난 ·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은 KBS1, MBC, 불교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들도 봉원사, 구인사, 탑주심인당 등 전국의 사암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으며, 제등행진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진행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2 선지식-동광 스님 ▶11 강의-향봉 스님 ▶7 현장-5 · 18광주민주항쟁 30주년

785 · 786호
24면 발행합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785-22010.5.2611:36AM페이지1(1,1)

가야산 골프장… 해인사 나서라

조계종 환경위 등, 제17차 국립공원정책포럼 개최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2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입장보다는 개발과 관광정책이 더 힘을 얻고 있어 해인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분과위원회, 한백생태연구소는 5월 12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제17차 국립공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의 어제와 오늘, 이후 전망'을 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영주 조계종 사회부 사회팀장, 김창기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조성반대 대책위 위원장, 박태현 강원대 교수, 최송현 부산대 교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업체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은 5월 12일 20년만에 다시 불거진 해인사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병인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4월 14일 가야산 골프장 현장 답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골프장 예정지의 문제점으로 △공원 내 훼손 행위 등 관리부실 △환경영향평가과정 중이면서 공원 내 현상변경 없이 불법 훼손사태 발생 △직간접 피해자인 해인사·심원사의 무관심 △상류지역 난개발로 인한 하류지역 친환경농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인 교수는 "경제살리기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건설사업이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사업"이라며 "한국에서 골프장 건설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위기와 환경파괴임을 확인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해인사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면 사업자체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을 사안이었음에도 해인사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해인사이고, 지금 소임을 맞고 있는 스님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옥 대구환경련 사무처장은 "얼마 전 <해인>편집장을 만나러 갔는데 해인사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피하고 있었다"며 "사업주가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로비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만나 가야산 골프장 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사무처장은 "대구환경련은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을 승인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대해 이병인 교수는 "보존 위주로 관리돼야 하는 국립공원 내에서는 허가돼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환경부 존립자체에 대한 회의도 많은 실정에서 환경부는 국민을 위해 국토의 환경을 지켜간다는 원칙과 명분을 갖고 국가의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류에 휩쓸려 환경부가 골프장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국립공원관리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해인사 스님들이 반대 못하는 속사정

해인사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과거 골프장건설로 성주, 의령, 합천 3곳에서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당시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해 스님들이 함께 했지만 고초를 겪었다. 지금은 고령, 성주, 합천지역이 문제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특별한 요청도 없어 관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덕곡리 주민들이 찾아와 한 쪽 부류는 도와달라고 하고 한쪽은 돕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덕곡리 마을 주민들도 양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스님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나는 피해가 없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골프장 건설 관계자들이 해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차 반대운동의 후유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 후유증 중의 하나는 해인사 사중 스님들이 "환경연대 등 단체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스님들은 당시의 일에 대해서 문화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을 환경단체에 속아 그들의 들러리를 서면서 힘은 힘대로 빼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스님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해인사 스님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둘러봤다. 세계 제일의 품질로 알려진 가야산 고령토를 다 캐어낸 지역에는 가야산에서 자생할 수 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과 문화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적혀 있어 해인사 스님들이 반대운동에 나설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한·중·일 관음성지순례사업

17일, 삼국불교문화 교류 발전 기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일본·중국관음성지 대표단을 초청 5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합동 법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일본 중부관음 츠보이 젠코 스님, 종훈 스님, 토진 스님, 중국 다오치 스님.

한·중·일 삼국이 관음성지순례사업 전개를 통해 불교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 불교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은 5월 17일 서울 조계사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일본관음성지연합회, 중국 보타산연합회 초청 합동법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훈 스님은 "법회와 관음성지순례사업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불교문화교류와 우호증진으로 불법을 세계에 알릴 수 가교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중부관음 대표주지 츠보이 젠코는 "연등축제를 보고 불법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며 삼국간 우호증진을 기대했다.

중국 보타산불교협회 회장 다오치 스님은 "삼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관음성지순례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2008년 33개 관음성지를 선정해 광상품으로 출시했다. 주 관광 대상은 일본인이었으나 이번 간담회와 법회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3관음성지 순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관음성지 전용 16개, 혼합상품 36개, 템플스테이 1개로 53개 상품이 개발돼 1만 2000여 명(2009년 12월 기준)이 참가했다. **이상언 기자**

포교사단 위상 정립 시급

포교원, 제38차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출범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포교사 제도가 정착·되려면 포교사의 위상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포교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는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사단, 포교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3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포교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돼 권대식 총무원 기획실 주임이 '포교사의 회고와 전망'을, 곽명희 포교사단 부단장이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발표했다.

조계종은 1982년 3월 처음 240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후 2000년 포교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권대식 주임은 "포교사 제도는 불교 소양을 가진 인재를 현장 포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다양화·다변화되는 포교에의 접근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됐다"고 설명했다.

권 주임은 "포교사는 조계종단의 약점인 '출가자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획기적인 타개책임은 분명하지만 스님과 일반신도 사이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곽명희 포교사단 부단장도 "포교사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복전을 일구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불확실한 정체성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포교사를 배출한 종단이 활동지침을 통해 포교사의 역할을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식 주임은 포교사단의 위상정립을 위해 포교원에는 △포교원 차원의 포교사 활동 지침 마련 △포교사 선발 방식 및 운용의 제도화 △포교원과 포교사간의 소통·교감을 위한 조직적 대안 마련 △포교원의 포교사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 협조를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김문수 후보 4대강 발언 파문

김문수 경지도지사 후보가 5월 14일 SBS '시사토론'에서 "신륵사 주지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의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가 불교계의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한 불교능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공동대표 보선·수경·혜자·퇴휴·법륜스님, 이하 불교연대)는 17일 '4대강 개발 관련 거짓을 말한 김문수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사과·사퇴를 촉구했다.

불교연대는 성명서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발언에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불교계 입장을 왜곡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불교종단의 근본사상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영 스님의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적 없다"는 확인 발언 이후에도 김 후보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동섭 기자

콘크리트 법당, 고건축! 시원종합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흉내는 낼수있어도 금(金)과은(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성형제작과정


■포작성형양생과정 ■부연성형양생과장 ■포작설치과정 ■서까래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시공된사찰



특징 저렴합니다/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트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 본 업체는 시멘트법당 제조 및 시공에 관한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 (10-72820호 외 다수)로서 타인이 무단 침해할 경우 특허법 제126조 내지 131조 규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고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시원종합건설(주) ISO 9001(품질경영)인증기업
WWW.SIWONCONST.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9-38 청호빌딩 4층 전화 02)565-0887(代) 팩스 02)565-1835

■ 실무진에게 듣는 연등축제 뒷 이야기

세계인이 함께하는 불교문화 한마당 연등축제가 5월 16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회향됐다. 단 하루, 몇시간 동안의 연등행렬을 위해 1년 여를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이들을 만났다.

"모두 즐기는 잔치 만들어요"

봉축위 박상희 총괄팀장



"금 년 연등행렬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을 끝내고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맑았잖아요? 덥기는 했지만 행복한 고민이었지요."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박상희 총괄팀장(사진)은 1996년부터 15년간 연등축제를 진두지휘해 왔다. 전국의 연등축제는 박 팀장의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의 큰 밑그림에 따라 계획 · 진행돼 왔다.

-1년 여 준비해 온 연등행렬이 끝낸 소감은?

1년이 갔구나 싶죠. 하하하. 단체들이 나날이 스스로 즐기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줘 고맙기도 하고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연등축제의 원동력은 자발적 참여에 있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니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내용이 풍부질 수 밖에요.

-올해 연등축제에 특별히 관심을 둔 부분은?

외국인 조사 결과, 한국문화와 관련한 전문부스가 없다고 지적해서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공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몇 년 만에 부처님오신날이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 후에 찾아온 해입니다. 시험기간이 끝난 학생 참여를 늘리려 독려를 많이 했어요. 연희단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과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행한 화합한마당(연등법회)에 1주일 간격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연희단은 단 하루를 위해 1년 여를 연습합니다. 운동장에 비라도 오면 어쩌겠어요? 화합한마당 공연에 앞서 사전예행연습 차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함께 모여 하나 된 신명나는 자리를 열어 봉축 기운을 높이자는 것이 이유이겠지요.

-15년을 연등축제와 함께 보냈는데 연등축제의 매력은?

연등축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 몇 개의 장엄등이 행렬에 참여했는지보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사부대중의 정성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연등축제의 매력 아니겠어요?

-연등축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큰 단체는 과시말고 작은 단체는 기 죽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나면 웃을 수 있는 잔치가 돼야합니다. 또, 각자가 개인등을 만들어 스스로 밝히는 문화가 돼야 진정한 연등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얼마만큼의 정성을 등에 담았는가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단체가 내놓는 장엄등 문화는 엄밀히 말해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개인이 연등을 직접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옛날에는 재료까지 직접 구해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재료는 넘쳐나는데 만들 줄을 몰라요. 내 손으로 등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내고 원리만 알면 간단한데. 누구나 쉽게 등을 만들 수 있게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등만들기 강습회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연등축제는 어떻게 준비할건지?

내가 준비하는게 아니라 전국의 단체 · 대중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자료를 수집해 우선 해외홍보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닌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경쟁심 등 비불교적인 사고로 시비분별에 끄달려서는 안 돼요.

연등행렬 코스가 동국대로 바뀐 이후 지난해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등행렬에는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연등을 들고 나와 종로를 신명나는 축제마당으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열린 5월 16일 종로를 장엄한 제등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문화 시민축제로 만들 터"

부불련 박도환 사무국장



봉축 문화의 거리 10만 명, 봉축연합대법회 3만 명 등 2010부산연등축제에는 총 15만 여명에 이르는 부산시민이 동참해 그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단 10일간의 축제를 위해 지난 1년간 구슬땀을 흘린 봉행위원회는 바로 7명의 재가불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다. 20여 년간 연합회를 지켜온 박도환 사무국장(사진) 및 직원들은 이번 축제를 100점 만점에 10점 모자란 90점이라고 평가했다.

박도환 사무국장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는 연등축제라는 기획의도로 신설한 세계 최장 길이의 염주 만들기와 풍등 날리기 등 이벤트가 국민 정서에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제등행렬 운동장 퍼레이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소재 의상업체로부터 대여한 전통의상 152벌을 부산 파라미타 소속 청소년들이 착용케 해, 청소년 불자들이 봉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봉축 문화의 거리의 경우 작년에 비해 부스는 줄어들었지만 10~20대 시민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틀간 무상으로 나눠준 전통등 2000개가 동이 날 만큼 호응도가 높았고, 현장에서 등을 만들어보는 코너 또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박 국장은 "신규 장엄물의 부재와 부산역 광장 및 광복로 일원에 전시할 수 있는 장엄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출품하지 않아 매년 봐온 관람객들은 식상했을 것"이라며 사찰들의 낮은 참여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부산시민들의 연등축제는 16일을 끝으로 폐막했지만 연합회에는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정산 및 결산보고, 축제평가회 등의 업무로 6월말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바쁠 예정이다.

박도환 사무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대형장엄등 시내 카퍼레이드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언론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내년에는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장엄등을 보다 많이 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로 봉축문화의 거리를 통해 부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깨달은 만큼, 내년에는 불교문화 체험과 함께 종교를 초월한 시민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변화 위해 사부대중 참여 절실"

광주봉축기획단 문귀례 사무국장



"의식을 위한 행사보다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연등축제가 돼야합니다. 올해 행사는 많은 축사로 대부분 참가자들이 지루해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월 30일 광주 문화전당(舊 도청) 앞 점등식과 5월 3일 광주시청앞 점등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연등축제가 시작됐다. 연등축제는 5월 14일 광주공원에서 진행된 연등법회, 연등행렬, 대동한마당 행사로 이어지며 사부대중이 하나된 신명나는 잔치를 벌였다.

연등행렬에는 광주전남지역 100여 사찰과 2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전통등 행진으로 다양한 장엄물과 전통등이 선보여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마음선원, 금광사, 원각사 등의 장엄물이 주목을 받았다. 연등행렬 후 문화전당 앞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에는 인기가수 강진, 진국이 등의 공연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의 율동이 돋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봉축행사를 기획 · 진행한 광주봉축기획단의 특징은 구성원의 대부분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기획단 구성원 가운데 재가자는 문귀례 사무국장(사진)이 유일하다.

"연등축제에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벌써 5~6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했어요. 변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문 국장은 "연등축제는 쉼 없이 변화해야 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봉축기획단에 스님, 신행단체와 신도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긴 시간 연등축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귀례 국장이 강조하는 연등축제의 변화는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이 즐기는 축제이다.

"연등법회의 식순을 간소화하고 법문을 불자가 아니라도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내용으로 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문 국장은 "매년 일찍 서둘러 봉축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항상 늦어졌다. 내년 봉축행사를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봉축기획단을 일찍 구성해 광주전남 불교의 특색을 살린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발전"

전북봉축위 이원일 사무국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우리 문화의 계승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통문화 차원의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전주 지역의 유명 농악단을 초청해서 불교문화와의 교류를 모색하고 전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전북지역 부처님오신날 행사 실무진행자인 전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이원일 사무국장(사진)은 올해 연등축제의 특색을 이렇게 말했다.

이 국장은 연등행렬의 선두에 전통등을 내세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위봉사 · 송광사 불자들이 아름다운 전통등을 돋보이게 했다. 장엄등을 대형화해서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거기에 사찰별로 장엄등을 준비하게 해서 송광사의 뽀로로 등이나 아(亞)자형 종각 형상을 표현한 등과 진각종의 삼고저등, 천태종의 용등, 운전기사불자회의 장엄 차량 등을 전북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게 한 장본인이다.

특히 2554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해 참석한 내빈과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나눠먹는 모습은 '나눔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세상'라는 봉축표어와 가장 일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일 사무국장은 "아직도 전북 연등축제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며 "스님들의 행렬을 보다 장엄하게 해야 하고, 질서유지 요원들의 사전교육 강화, 다수의 불자들이 사용하는 주름등을 전통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연등행렬에 스님들만 참석하는 사찰들이 많이 있다"면서 "각 사찰별로 참여인원을 독려해 보다 많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연등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봄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죽육기 145,000
☎ 02)2004-8216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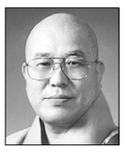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총 무 원 : 02)733-5670.733-5665 / 팩스 : 02)733-5671

일 주 문



현성 스님, 노인초청 경로잔치

서울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은 5월 11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150여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용주사 다문화초청 대잔치

화성 용주사 정호 스님은 5월 16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대잔치를 열고 항공권,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



월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친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31일까지 월정사 적광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 해인만다라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6월 13일 해인사 경내에서 제5회 글 · 그림 대전 해인만다라를 개최한다.



덕현 스님,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5월 16일 맑고향기롭게 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열린선원 개원 5주년 법회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태고종 부원장)은 6월 5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개원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정토회 천일결사 입재식 봉행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6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인 수행 입재인 제6회 천일결사, 제9차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불레협 제26회 연꽃문화제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6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부처님나라, 부처님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제2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승만보살 10대원 회향법회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6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행정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동방대학원대학교 서화작품전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은 5월 27일~6월 2일 백악미술관에서 개교 5주년 기념 서화기증작품전을 개최한다.

interview

"경쟁만 하다 죽으면 허탈할까 출가"

'젊은 날의 깨달음' 펴낸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 교수 혜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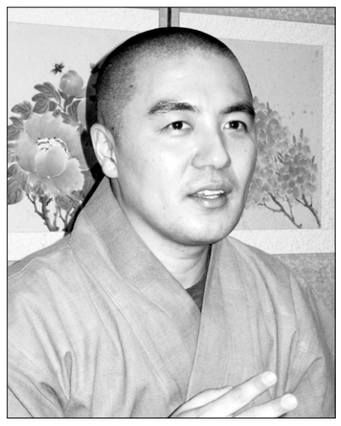
'UC버클리 졸업, 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원 박사….'

입학하기 어려운 미국 명문대에 들어가 세 곳의 졸업장을 거머쥔, 흔히 말하는 고(高)스펙의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그는 갑자기 출가했다. "성공을 위해 끝없이 경쟁만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은 미국 최초의 한국인 스님 교수인 혜민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UC버클리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학위를,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교수다.

혜민 스님은 최근 발간한 에세이집 <젊은 날의 깨달음>(클리어마인드 刊)에서 10여 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며 겪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미국으로 영화공부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버클리대에서 만난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영향으로 종교학으로 전공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학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죽음 앞에는 학위 · 돈 · 명예 ·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지요."



스님의 책에는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스님은 "책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면서 하버드대만 들어가면 성공하는 줄 아는 한국의 삐뚤어진 교육열을 지적했다.

스님은 "'하버드'라는 간판을 쫓기보다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교육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종교학자 막스 뮐러는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면 그 종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혜민 스님은 막스 뮐러의 말을 인용하며 "한 가정 내에서도 종교가 달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이 종교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던 모습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익힌 스님만의 '몸으로 부딪히기' 식의 외국어 공부 비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티베트 불교가 붐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 불교가 불교의 정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스님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한국불교를 배우려고 방한하는 외국인들을 잘 교육시켜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불교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것이 아쉬워 앞으로 미국 등 외국에 한국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불교와 현대불교를 연결하는 연구를 계획해 다이나믹한 한국불교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롤모델되겠다"

'연우와함께' 이상근 신임 대표이사

"성과와 효율보다 가치 공유가 우선입니다. 제품을 통한 상생, 가치 공유와 생활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불교계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으로 기도와 정성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에 이상근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사회적 기업은 돈 벌어서 좋은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설립, 소비, 생산, 투자자들도 모두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 공유는 '상생'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일자리 · 수익창출을 통한 회향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을 넘어 생산자 · 소비자 · 판매자 등 이 서로 불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대표와 직원도 상하구조의 리더십이 아니라 원(圓)의 리더십을 통해 원융화합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성과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기업이 '연우와함께'입니다."

이상근 대표는 "효율성으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사명이 기반이 된 공생을 이뤄 '연우와함께'를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낸 유기농 제품, 수익을 얻고자 생산하기보다 나누고자하는 생산자 발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한 알의 쌀 안에 우주가 깃들어 있음을 깨우쳐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교계는 사회적 기업의 텃밭이라 불릴 만큼 제조 생산 유통 판매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연우와함께'를 보고 불교계에서 1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상언 기자

진각종 낙산심인당 헌공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5월 18일 낙산심인당(주교 증혜) 이전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낙산심인당 이전신축 헌공불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하며 마음 속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회향의 밀엄정토를 여는 것"이라며 "수행을 위해 우리는 지역의 정서와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해 스스로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일하지 않는 정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산심인당은 대지면적 1079.9㎡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조동섭 기자**

해운대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



부산 해운대 룸비니포교원(주지 겸 조실 도문)은 5월 10일 해운대 백사장 등에서 수륙고혼 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문 스님은 무상게와 고려대장경 6부 핵심 사구게를 설해 고혼들을 천도하고 천안함 희생자를 위로하는 한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남북통일의 발원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한편, 수륙고혼 천도법회는 1912년도에 용성 스님이 한강에서 처음 시작돼 99년을 이어오고 있다. **조동섭 기자**

목포불교사암협회 연등법회

목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법주사 주지)는 5월 16일 목포역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진을 펼쳤다.

행사에는 몽산 스님(前 대흥사 주지), 도정스님(대흥사 총무), 목포 불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수도암 수자타공양실 현판식

대구 수도암(주지 승원)은 5월 14일 '수자타 공양실' 현판식을 열고, 전통 약선요리 등 웰빙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전 수자타란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 기력을 회복한데서 이름을 딴 이 공간에서는 천연 식재료를 이용한 약선요리 등이 신도와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주지 승원 스님은 "수자타 공양실을 다도 등을 무료로 강의하는 문화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고창 선운사 군산교도소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5월 19일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지 법만 스님을 계사로 48명의 불자재소자들이 5계를 수지하고 건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법만 스님은 "수계는 범부가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5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덕범

승정원장	청호 만오	직할교구종무원장	대 력
종회의장	지언 만성	서울교구종무원장	홍 각
총무원장	화륜 송봉	경기교구종무원장	일 광
사무총장	덕산 남송	인천교구종무원장	도 경
선원장	도 행	대전교구종무원장	보 성
호법원장	삼 장	대구교구종무원장	금 강
교육원장	지 언	울산교구종무원장	성 산
포교원장	대 력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 련
문화원장	법 륜	부산남교구종무원장	도 경
국제문화원장	일 교	김해교구종무원장	관 음
감사원장	도 경	창원교구종무원장	법 장
포교사회회장	보 하	동마산교구종무원장	대 행
포교사회부회장	청 정	마산교구종무원장	대 비
중앙신도회회장	승만석	제주교구종무원장	혜 봉
중앙신도회부회장	권탁위	일본동경교구종무원장	만 공
중앙신도회부회장	김영규	종정실 사서실장	정산 금봉
중앙신도회총무	이금동		

■ 총본산 대무량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 전화 055)672-4591~2, 672-4394

"공동 모금 · 나눔활동 펼치자"

자승 스님, 구세군 서울후생원 방문서 제안

조계종이 구세군에 부처님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에 공동 모금 · 나눔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7일 어린이 보육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부처님오신날의 모토가 '소통과 화합'이다. 앞으로 크리스마스나 부처님오신날에 불교계와 구세군이 함께 모금도 하고 나눔 활동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구세군 전광표 사령관에게 연등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스님은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과 전명선 후생원 원장을 만나 "부처님의 자비를 연꽃에 비유하곤 하는데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비를 나누는 것은 어느 종교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다"며 연등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광표 사령관은 "예전에 의정부와 서울역에서 여러 스님들이 구세군 모금활동을 같이 해주신 적이 있다. 원장스님의 방문이 구세군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구세군 방문에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종교와 문화' 주제로 31차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

한국종교연합은 5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와 문화'를 주제로 제51차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김문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종교의 역할'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봄으로써 개별성을 통한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상숭배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엄격주의로 기독교 조형 · 공연예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통적인 예술문화를 적극 수용해 통상적인 예배 양식을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통세시풍속, 통과의례 등을 종교생활과 연계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중학생 천진불들의 축제

종립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 이하 금정중) 800여 명의 천진불이 5월 한 달 간 사경 및 백일장, 1080배 성취기도 등에 동참하며 부처님 오심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

금정중 학생들은 5월 7~29일 전 교생을 대상으로 음악시간 및 종교시간마다 '삼귀의' '찬양합니다' '보현행원' '부처님 오신날'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등 실제 법회에서 부르는 찬불가와 습의를 지도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11일에는 학생 대표 및 이석언 교법사가 함께 인근의 금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면서 이웃돕기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5월 11일 오후 점등식 이후 교내 법당과 교문, 자비동산, 중앙 현관 등 학교 곳곳에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연등은 이달 말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2010부산연등축제 2010부산연등축제가 5월 16일 구덕운동장을 출발해 부산역광장까지 제등행진 후 특설무대에서 마련된 회향한마당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진과 불자 예술단' '도유정 예술단' '들소리 난타팀'과 재가불자로 구성된 찬불가 율동팀 '플라잉'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박지원 기자

전국 차인들 차향기 가득한 축제

해남 대흥사, 초의문화제 및 대한민국차인대회 개최

전국 차(茶)인들이 모여 차 향기 가득한 축제의 마당을 펼쳤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재)명원문화재단, (사)해남다인회와 공동으로 5월 13~16일 제19회 초의문화제와 제3회 대한민국차인대회를 대흥사 경내와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3일 전국 차도구 공모전을 시작으로, 15일 녹차만들기 체험 및 경연대회, 기념 다악제, 제2회 창작 다례복 경연대회, 16일 전국차인 일지암 헌다례, 부도전에서 열린 '조사헌다례', 육법공양, 기념식이 봉행됐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이 초의 선사 부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31회 초의상에는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과 명원문화재단 제미경 대구지부장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흥사 부도전에서 열린 조사헌다례에서 범각 스님은 "역대 선사들에게 차를 올리는 것은 큰 영광이다. 하지만 대부분 초의 스님만을 생각하게 된다"며, "초의 스님이 있기까지는 대흥사의 많은 선사들의 차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의 다인(茶人)이라면 매년 1번씩은 초의 스님 부도에 들러 차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강 중단 '미호천 솟대 세우기'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종교 사랑방', '충북도내 환경단체' 등이 주최하고 '충북4대강시민감시단'이 주관하는 '절체절명의 미호천 솟대세우기' 행사가 15일 미호천 작전보 둔치에서 열렸다.

각 단체 회원과 6 · 2지방선거 출마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혜전 스님(청원 석문사 주지), 김태종 목사 (청주 삶터교회), 이중섭 신부(성모성심성당) 등이 생명기도회를 올렸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의 미호천 자연놀이로 미호종개 그리기, 자연물 액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문화행사로 울림의 길놀이,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의 강을 위한 솟대세우기와 손수건 달기, 생명평화를 위한 삼배를 올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100자 뉴스

천주교 주교회의, 낙산사에 봉축메시지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희중 대주교 등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양양 낙산사를 방문해 교황청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5월 14일 양양 낙산사를 축하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회, 1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는 6월 11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2010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학회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총회에 앞서 김영두 회장이 '한국선학회 10년의 회고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주제발표로는 현대사회와 선의 재발견(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 선문답의 현대적 적용(김호귀 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 등이 발표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사찰경영지도자 과정' 개설

6월 3~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3~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0년 상반기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개설한다.

행사에서는 '주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총론, 사찰총무재무행정, 사찰경영, 사찰부동산등기 실제 등 주지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부모님의 생애〉 독후감, 수상작 17편 선정

조계종출판사가 개최한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대회에서 이지안씨(대구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이현수씨(수원시), 우수상은 김창모씨(충남 계룡시) 김지훈씨(경기 성남시) 구회철씨(서울시) 신지원씨(서울 동대부고) 박나정씨(한양사대부고) 등이 차지했다.

이나은 기자

법정 · 김수환 · 강원용이 바라본 이웃종교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의 시각으로 이웃종교를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는 6월 3일 오후 4시 연세대 백양관 강당에서 '세 명의 거인들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장 스님(티베트박물관장)이 '법정 스님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장항리석불 35년만에 본래모습 찾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이 사적 제45호인 경주 양북면 장항리 석조불입상을 35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 박물관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실시해온 석불의 해체 및 보존처리를 마치고 옥외전시공간에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종우 연구원은 "불상과 동일한 재질의 암석을 장항리 현지에서 구해 복원의 마감재로 사용해 시멘트로 복원된 부분의 시각적 이질감을 해소시켰다"며 " 대좌 또한 장항리 절터에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 전시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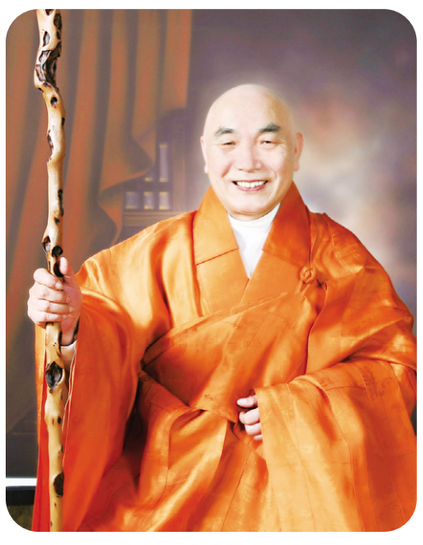
庚寅 四月初八日 慶祝 法語

종정예하 석가산 대선사

釋迦本務法 (석가본무법)
我亦阿曾慶 (아역아증경)
如是認得法 (여시인득법)
凡聖無有祝 (범성무유축)

석가에게 본래 법이 없거늘 나 또한 무엇을 일찍이 경축하겠는가
이와 같은 법을 증득하면 성인이나 범부가 경축할 것이다.

＊종단현황＊
현 전국 말사 : 288개 / 비구 : 360명 / 비구니 : 31명 / 전국신도 : 15만명
종도모집 환영합니다.


종정예하 석가산 대선사

종 정 예하 석가산 대선사

원로최고의장 관산 대종사
총 무 원 장 석능인

중앙종회의장 석묘각 사정원장 석현덕
중앙선원장 석법장 율 원 장 석도안

총무부장 석범일 교육부장 석현각
사회부장 석진각 문화부장 석혜광
호법부장 석영산 규정부장 석규봉
국제부장 석월산

서울 종무원장 석법륜 경남 종무원장 석혜천
부산 종무원장 석효천 충남 종무원장 석청화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4층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전화 053)325-5288 / FAX 053)325-4848 / E-mail : sambo111@hanmail.net

교육에도 좋은 우리나라 전통놀이

파라미타, 2010 청소년 문화존 '문화야 놀자' 개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하는 2010 청소년 문화존이 5월 8일 서울 인사동에서 개막됐다. 청소년 문화존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한지 공예, 탈 만들기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왼쪽은 청소년 문화존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꾸민 하회탈이다.

국내외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와 놀이체험을 제공하는 문화마당이 인사동에서 11월 13일까지 열린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는 5~1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010 청소년 문화존 '문화야 놀자'를 개최한다.

2010 청소년 문화존은 5월 8일 개막을 시작으로 29일, 6월 12 · 26일, 9월 11 · 25일, 10월 9 · 23일, 11월 13일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 회인 11월 13일에는 동아리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8일 개막식은 풍물놀이와 파라미타 상임이사 상인 스님의 개막 선언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청소년 문화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솟대 만들기, 한방 비누 만들기, 한지 공예, 거울 만들기, 탈 만들기, 떡메 체험, 투호 놀이 등이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개인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존이었지만 전연령대의 대중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동에서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투호를 던지는 모습, 초등학생이 떡메를 들어 올리는 모습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 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채한기(70)씨는 "전통놀이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채씨 손녀인 여원(9세), 여진(6세)양은 손수 색칠한 하회탈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했다.

동대부속여고 박영선(18세) 학생은 연꽃이 그려진 거울을 만들어 보이며 "선물 받는 느낌이다. 직접 참여하니 재미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종로구 청소년문화존 주관 단체로 선정돼 2005년부터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 일대에서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인사동 탐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파라미타 권민희 간사는 "파라미타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부산 · 전남협회에서도 청소년문화존을 실시하고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전할 것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파라미타가 청소년문화존 주관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23-6165~6.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모두가 태양같은 미소지어요"

6 · 19 ~ 20일 어린이 법회 지도자 연수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서 지도교사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현대불교 자료사진)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방학도 있고 바닷가도 있지만 불자 어린이들은 사찰 여름불교학교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사단법인 동련이 주최하는 제49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6월 19~20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다.

전국 500여 스님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회는 '태양 같은 미소로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 방법과 지도법 등 다양한 강의로 꾸려질 예정이다.

강의는 △눈으로 보고 신나게 움직이고(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율동팀) △21세기, 지구촌어린이 포교(혜전 스님 · 대만 불광산사 총도감원 원장) △호흡과 하나 되는 나의 몸(이영빈 · 관음무용단 단장) △어린이 법회 지도교수법-나만의 교수법 찾기(김윤경 · 동대부속여고 교사) △연꽃, 웃음꽃이 피었습니다(이완국 · 웃음치료사) △오근(五根) 총 출동, 신나는 불교학교(신공 스님 · 사단법인 동련 이사) △부처님과 함께 리듬에 맞춰 짝짝짝(이종만 · 종은벗 풍경소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오근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작용이 이뤄진다. 어린이 불교학교 지도자들이 연수회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고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전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수 참가비는 학인스님 4만원, 제주도 · 울릉도 거주자 및 군종병 3만원, 사전 접수 6만원, 당일 접수 7만원이다. 입금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자는 연수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051)864-4569

박선주 기자

"친구들 몸은 소중하니 잘 지켜야 해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인형극

"친구들이 내 몸을 가지고 놀리거나 장난 치면 '안돼, 하지마, 그만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일도 알아야 겠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성 정체감을 심어주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랑)가 인형극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5월 11일 진관초등학교와 19일 은혜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 성교육을 진행했고, 6월 28일에는 서울 은평구 증산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한다.

인형극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인형극은 △생명 탄생 △양성평등 △아는 사람 · 또래 간 성폭력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인형극은 이름이 나무인 여자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다. 나무를 놀린 남자아이는 알고 지내던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나무를 놀려 다른 친구들로부터 혼자가 된 남자아이는 자신이 나무에게 한 행동이 성폭력이었음을 알게 된다.

김영란 소장은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다. 아이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02)732-1367 박선주 기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5월 1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구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소희)과 아나율 장애아 어린이집(원장 신임철)을 방문했다.

이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규만 주교와 김용태 · 이동원 · 민경일 신부, 가톨릭 사회복지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로했다.

가톨릭 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서로 어우러져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정신임을 각인하자"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지혜 · 자비심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되길

서울구치소 괘불탱화 점안식 및 봉축법회

서울구치소가 5월12일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치소의 무사고와 수용자 건강을 기원하는 봉축법회와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봉축법회는 서울 청계사(주지 성행)의 주관으로 열렸다. 성행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도록 발심하자. 수용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진해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화쟁의 공동체를 이어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최숙희)는 전동식 괘불탱화(3m50cm x4m30cm) 점안식을 봉행했다.

현재 서울구치소 내에는 법당이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 구치소 내 대강당에서 법회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대강당은 구치소 내 여러 행사가 열리고 이웃종교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회가 있을 때마다 불상을 옮겨와야 했다. 이에 서울구치소교정협의회 불교분리위원회는 전동식 괘불탱화를 마련한 것이다.



5월 12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괘불탱화 점안식에서 유화영 포교사와 최고수 불자(법명 혜담)가 108배를 하고 있다.

동참한 사부대중과 수용자 불자들은 괘불탱화에 향 등을 올리며 참배했다. 불자들을 대표해 유화영 포교사와 서울구치소 재소자 불자(법명 혜담)는 108배를 하며 예를 표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문수사 혜정 스님과 삼천사 성운 스님, 성불사 혜산 스님, 불은사 보운 스님, 응성사 수암 스님, 원각사 대원 스님과, 김미숙 · 오정심 · 최숙희 교정위원, 조철주 · 노복일 · 김경희 · 김선정 · 유화영 포교사단, 서울구치소 불심회 김행규 회장, 수용불자 대표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박선주 기자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5교구 본말
사명성사 호국성지 표충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표충사
전화 055)352-1150 / 팩스 055)352-1836 http://www.pyochungsa.or.kr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신아
(137-86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 2-3층
전화 代 02)523-0008 / 팩스 02)535-9994
www.lawshina.com



조계사 합창단이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법회 및 추모 위령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게 했다.



왼쪽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총무 무진 스님, 연담 스님, 김동수 열사 아버지 김영석 옹, 김동수 열사 추모사업회 이준규 회장.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법회

그날의 상처 보듬어 주소서



5·18 광주민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사진. 계엄군이 시민의 옷을 벗긴 채 폭력을 가했다.

"역사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80년 광주의 희생과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나약하고 비굴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주와 평화 그리고 정의의 역사로 바꿔놓은 숭고한 영령에게 극락왕생의 가피를 내려주옵소서."

굵은 빗방울이 대지를 적신 5월 18일 서울 조계사. 막 연등축제를 마친 경내에는 축제열기가 한풀 꺾여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3일 앞두고 있지만 경내는 고요했다. 때 아닌 총성이 들려왔다. 법당을 빠끔히 들여다보던 참새도 파닥 날갯짓을 한다.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신도들의 안타까운 탄성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흑백 영상에는 군인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시민이 바지 끝을 잡힌 채 끌려가다 내동댕이쳐지고 있었다. 참혹했다.

앞으로의 민주화는 살아갈 사람들의 몫

슬픔 되새기는 날 아닌 민주주의 기념일 되길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가 이어졌다. '자주와 평화, 역사로 바꿔놓은 숭고한 영령'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리고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발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법회 및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슬픈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며 추모법회를 시작했다.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5·18 영령의 염원과 민주화 정신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화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이 이룬 것입니다. 사건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 다가올 5·18은 슬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닌 민주주의를 이룩한 기념의 날이 돼야겠습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앞으로의 민주화는 살아있는, 살아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영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마음의 짐을 털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04년 5·18기념식부터 공식 추모곡으로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다. 토진 스님은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 더 부르고 싶어졌다"며 조계사 합창단에게 노래를 청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29일 광주에서 치러진 합동차례에서 아버지를 잃은 꼬마 상주가 영정에 기대있다.

민주항쟁이 벌어진 광주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가슴에서 아려오는 아픔과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살아온 남은 자의 슬픔이 더해진다.

광주지역신행단체는 5·18 당시 격전지였던 광주 원각사에서 故 지광 김동수 열사 및 희생자 추모 법회를 개최했다.

김동수 열사는 조선대 불교학생회 소속으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5·18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광주지역 봉축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이었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사수하고 있던 그해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시민군이 무자비하게 짓밟힐 때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아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희생됐다.

법회에는 김동수 열사의 부친 김영석 옹, 모친 김병순 여사가 참석해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더했다.

한편, 광주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추모법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또 공식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추모식과 별도로 5·18 구(舊)묘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6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망월묘역)에서 '2010 민족민주열사 해원 큰 굿'을 개최했다.

이상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18은 제 마음의 짐입니다"

광주항쟁 겪어낸 연담 스님

"5·18 당시 같이 활동한 가장 절친했던 도반 진각 스님(이광영, 구례 화엄사 주석)이 계엄군이 쏜 총탄에 척추를 맞아 불구가 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제 마음속의 짐입니다."

연담 스님(前 보림사 주지 · 사진)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있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스님은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해 한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연담 스님은 5·18 당시 광주 무등산 증심사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다. 스님은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일 한 신도의 아들에게서 광주시내에 대해 생생히 들었다. 스님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연담 스님은 다음날 시내로 나갔다. 광주시내에는 시민들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스님은 군인들이 시민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도우러 온 도반인 진각 스님과 같이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날 저녁 다시 사찰에 가서 부처님오신날 준비를 했다.

1980년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사찰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교통수단이 움직이지 않았고, 통행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초파일 음식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손수레에 싣고 전남도청으로 나갔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에 항의하기 위해 전남도청에 모였다. 계엄군은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 이날 최소 54명이 숨지거나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숨을 위협받은 시민들은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22일 다음날 기독교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광영(진각 스님)이 총에 맞고 실려왔다"는 참담한 소식이었다. 병원에서 만난 진각 스님은 "척추에 총을 맞아 불구가 되었으니, 부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증심사에 데려다 달라. 증심사 토굴에 연탄불을 피우고, 천수경 염불을 해달라.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는 멋진 중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진각 스님을 부모님에게 보내야 했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시내에서 시민군 활동을 했다.

연담 스님은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연설한 것이 시민 선동죄가 돼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 10·27법난으로 운악산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끌려가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前 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과 주지 인묵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그 후 스님은 서울로 상경해 1984년 중앙포교연구회를 조직했고,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돼 이념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사무국장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관련 국민운동본부 불교계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욕심 없이 살고자 출가를 결심한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속세와 출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편지만 남겨놓고 1주일 동안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찰에 찾아와 제 모습만 보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자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시고 사시는데 출가를 하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 불효하는 것 같아 다시 속세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A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인데 참으로 대단합니다.

부모님 생각에 몸은 집으로 돌아오셨으나 마음은 사찰에 남겨두고 오신 듯합니다. 자식으로 효도를 다하려는 마음이 갸륵합니다. 부모님 곁에서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가로 훌륭한 스님이 돼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더욱 수승한 효도입니다.

유마 거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마 거사는 재가자로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출 · 재가 구분 없이 본인의 의지와 수행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인데 사사로움에 흔들리면 출가뿐 아니라 매사에 성취의 길이 멀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당시 부왕이신 정반왕께서 싯달타 왕자의 출가를 반대하셨지요. 싯달타 왕자께서 홀로 궁전을 거닐면서 언제쯤 출가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내게 큰 장애가 생겼구나"하시어 아기의 이름을 라훌라(장애)라고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선지식들도 가족의 만류와 수행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출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 문제도 있지만 출가해 공부(수행)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에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어야 올바른 수행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오셨으니 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출가를 해야만 하는가, 다시 출가를 한다면 흔들림 없이 깨달음의 길을 갈 자신이 있는가, 출가는 어느 사찰로 할 것인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이겨내어야 성장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깊이 고민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가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요

출가에 대해 다시 점검하시고 껍질 깨고 나오세요

Q 1년 전 저는 어느 술집사장과 심하게 싸우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술집 사장은 어린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신경성 위염까지 생겨 계속 살만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분노에 안절부절 못하다 학업도 중단했습니다. 온통 그 놈 생각이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장에게 복수하러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몰래 쇠파이프 들고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과 부모님께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A 분함을 갚으려고 극한의 방법을 결심하고 행동을 하려했으나, 불자답게 위기극복을 잘 하셔서 마음가짐이 돋보입니다. 불법을 따르고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마음을 제어한 것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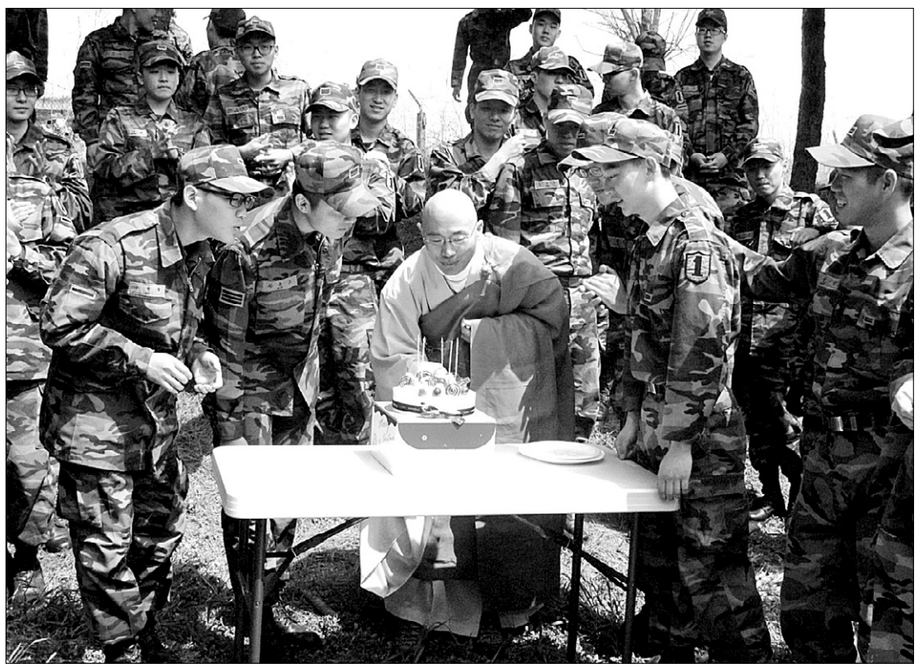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과를 바로 이해하면 분하고 복수심에 불탔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탐 · 진 · 치 삼독 중 진심은 한 생각 바꾸면 쉽게 떨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한평생 마음 다스리는 공부하는 것이 한 생각 잘못하면 삼독심이 발해 쌓은 공덕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한 생각 바꿔서 이해와 용서로서 악연을 선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뜻하신 모든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군포교는 거사불교 밑거름

사랑법당 탐방

쌍용부대 충의호국사


본공 스님과 5월에 태어난 쌍용부대 장병들이 생일축하케익의 촛불을 끄고 있다.

매주 '기화류강' 회원들이 사회자 등 맡아 법회 진행
생일축하 · 가족에 영상메일 띄우기 다양한 서비스

군대는 거사불교를 양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교의 장이다. 신도의 고령화 등 한국불교의 허약함을 보완할 기회가 군포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당에는 교계의 지원이 늘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는 거리라도 가까워 군포교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전방지역은 지원의 손길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전방지역을 포교하는 군포교사들은 모두가 바쁜 일정을 쪼개 자비를 들여 간식을 사들고 군법당을 찾고 있다.

파주 쌍용부대 '충의호국사'는 달랐다. 매주 10여 불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장병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의 정성으로 법당에는 날이 갈수록 장병수가 늘어나 이제는 부대인원의 1/4인 100여 명이 매주 법당을 찾고 있다. 법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 법당 확장불사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충의호국사의 변화가 6개월 여의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충의호국사 법당은 작년까지 폐쇄됐다가 올해 1월 새롭게 장병을 맞았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5월 2일 일요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사단 12연대 쌍용부대 충의호국사를 찾았다.

아침 일찍부터 호국사 앞에는 10여 명의 40~50대 남 · 여 불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중에는 부부동반도 있었다. 이들은 조계사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기화류강'의 회원들이다. 前 조계사 교무처장 본공 스님의 지도아래 10여 명씩 조가 편성돼 번갈아가며 매주 일요일 호국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법회를 집전하는 사회자, 피아노 반주자, 동영상 촬영팀, 간식 제공팀 등 하는 일을 정확히 나누어 짧은 법회 시간에 맞게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공 스님은 "서울 불광사 중 · 고생법회를 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젊은 불자수를 보면서 '미래불교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다 젊은이들이 집중돼 있는 군대가 생각났고, 군포교에 힘써야겠다고 발원하게 됐다"며 "조계사 불교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들을 군포교 지원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스님의 발원으로 1월부터 회원들은 조를 나누어 군포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부처님도 모시게 됐다. 한 불자의 기부로 법당에는 피아노까지 갖춰졌다.

이들이 마련하는 먹을거리 또한 기화류강 회원의 자랑이다. 회원들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고자 부침개, 잡채 등의 간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장병들에게 공양하고 있다. 이날의 메뉴는 호떡이었다.

'기화류강' 회원들은 호국사 앞마당에 간이테이블을 펼치고 휴대용 가스렌지위에 프라이팬을 놓은 뒤 식용유를 붓더니 미리 준비해온 반죽에 흑설탕을 넣고 둥글게 말아 올려놓았다.

야외에서는 호떡 만들기가 한창일 때, 하나 둘씩 장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법당에 빼곡하게 자리가 차자, 정진경 거사가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찬불가를 가르쳤다.

이어서 본공 스님의 법석이 펼쳐졌다. 스님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네 명의 부인'을 이야기 해주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법회가 끝나고 장병들은 야외로 나와 기화류강 회원들이 준비한 호떡을 맛있게 먹었다. 회원들과 본공 스님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매월 그달에 태어난 장병들을 위해 케익을 놓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가족에게 안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장병들에게는 동영상을 찍어 이메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매주 출석체크를 해 3주 연속 출석한 장병들에게는 염주를 나눠준다. 제대하는 병장들의 이메일 주소는 따로 관리한다. 한마디로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가 철저하다.

장병들의 반응이 꽤 좋다. 벌써 3주 이상 출석해 염주를 두 개나 받은 이도 보였고, 간식을 먹다 말고 동영상촬영을 담당하는 불자에게 가족에게 영상메일을 띄우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한다.

우희덕 병장(22)은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법당에 와서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져 좋다. 매주 다양한 간식거리도 주니 법당이 커지면 더 많은 장병들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일요일 오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느낌이었다. 기화류강 회원들이 알아서 척척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도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호 · 연영선 부부는 "조카가 군복무 중인데 군법당을 다닌다. 전에는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더라.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포교도 그렇게 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공 스님은 서원이 하나 있다. 충의호국사를 확장시켜 야외에서 장병들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법회시간을 오래 가져 불교를 더 많이 자세히 알리는 것이다. 현재의 호국사는 규모가 작다보니 장병들은 빽빽하게 들어앉아 반배도 못하고 법회에 참석해 집중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본공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를 접하는 장병들 중 상당수가 불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제대한다. 총무원과 포교원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생각해 군포교를 소홀히 하지만 젊은 장병들을 잘 관리하면 이들이 미래 거사불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군포교에는 너와 내가 없다. 종단이 함께 모여 군포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주) 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1평~20평 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 직영점 0502-228-1510 011-673-2623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 심장병(부인화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C785-92010.5.2611:39AM페이지1(1.1)


무량사 부도밭. 왼쪽 키가 큰 부도가 매월당의 것이다.



34 김시습 입적한 부여 무량사

무량한 시간 속 잠들지 못할 고혼 그 외로움의 꽃 피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무량사의 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량사는 가을과 겨울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안겨준 울분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선택한 굽은 길들을 돌아 매월당이 찾아든 만수산은 가을이었지요. 그리고 새봄이 피기 전에 이승의 인연을 마감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스라한 허공에 이승의 찬란한 한 살이를 기억시키듯 매달린 홍시 같이 물컹한 마음으로 만수산을 찾아들었을 매월당, 그 늙은이의 긴 그림자는 지금 무량사 계곡에 꽃과 잎들의 잔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여 무량사(無量寺) 극락전(보물 제356호)은 꽃바람 가득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없이 높아 보입니다. 만수산이 떠받치고 있는 하늘은 극락전과 오층석탑(보물 제185호)과 석등(보물 제233호)을 배경으로 무량한 시간을 풀어 놓았지만, 누구도 그 시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가질 수 있을 뿐, 자기의 기억 용량만큼만 기억하고 자기 상상력의 부피만큼만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월당(梅月堂).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9년의 생애를 한 보퉁이에 싸안고 찾아 든 무량사에서 그가 펼칠 수 있었던 꿈은 그의 초췌한 나날에 비해 한 없이 큰 것이었을지라도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이미 세상은 뜻대로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 뜻을 팽개쳐야 한다는 지엄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는 꿈을 펼치기 위해 무량사로에 든 것이 아니라, 한 생애를 두고 접지도 펼치지도 못했던 안쓰러운 꿈들을 차곡차곡 갈무리하여 저 극락전 부처님 앞에 가을 시냇물처럼 차갑게 풀어 놓으며 자신도 시냇물이 되어 서방정토로 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월당의 생애는 아픔이었고 아픔을 극복하려고 더 아팠던 문학이었습니다.

한 갑자(甲子)를 살고 간 그의 삶은 주제가 분명하고 기승전결(起承轉結)이 명징했습니다. 입을 열면 황금바람을 토해내어 길고 짧은 시의 율격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 이승과 저승을 적셔대며 흐르는 깊고 그윽한 이야기(小說)가 되었으니까요. 술이라도 마시고 발광을 하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숨을 죽였고 미치광이 행색으로 저자거리를 휘젓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청량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했습니다.

매월당의 처절한 생애 부도에 애절하게 스민 듯
날선 아픔도 아물게 하는 시간의 부드러움 일깨워

매월당은 선사(禪師)도 강사(講師)도 아니었습니다. 행색은 승려였지만 마음속에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유림의 한 지식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귀의 했다기보다는 불문(佛門)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아픈 시절인연을 달래고 굴절된 현실을 통탄했던 겁니다. 유불도의 논지에 활달한 소신을 가졌던 매월당은 불교의 이치에도 막힘이 없어서 <십현담요해>를 저술하고 <대화엄일승법계도 주병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의 종교로써의 불교에는 끝내 침잠하지 못했습니다. 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질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유객(有客)'이란 시에서 "20년 동안이나 남북으로 떠돌았는데 손에 염주는 돌리고 있지만 머리에는 쇠털 모자로구나"라며 하염없이 떠도는 자신의 캐릭터를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오세(五歲)'. 매월당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오세. 다섯 살 때 왕(세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고관들로부터 이런저런 테스트를 거친 뒤 왕으로부터 "자라면 크게 쓰겠다"는 황감한 언약까지 받은 신동(神童). 그의 재능은 일취월장하는 지식의 폭과 깊이로 드러났고 입격(入格)하여 대장부의 길을 탕탕하게 가려는 청춘시절의 기상과 포부는 '오세신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스스로 꺾어 버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왕좌를 빼앗는 미증유의 정국(1453년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친정과 1455년 왕위 찬탈)을 본 김시습은 공부하던 북한산 중흥사 마당에서 읽던 책을 불태워 버리고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거지 미치광이' 노릇으로 일관된 그의 방랑은 서북과 만주벌판, 관동과 영남을 두루 거치는 길고도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은 모조리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모아 묶기도 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린 그의 시는 산천을 뒤덮는 낙엽이 됐고 낙엽으로 썩은 그의 정신은 강토에 인륜과 천륜의 지극한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음이 통한일 뿐.

방랑과 냉소가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매월당은 방랑을 접고 도성에 돌아와 생계를 꾸리려는 노력도 했고 고위직을 누리는 선후배 정치인과 동료들에게 객담과 야유와 꾸지람의 언동을 독화살로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절은 변하지 않았고 망가진 인륜과 천륜은 저, 영월 청령포의 소쩍새 소리로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기어이 청령포의 단종은 사약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고 왕좌를 삼킨 세조의 시대를 거절할 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의견을 모았다가 일거에 몰살되는 일과 죽음으로써 거꾸러진 천륜에 저항 하던 신하(死六臣)와 살아서 부패한 현실을 부정하며 바른 길을 열어 보려 했던 신하(生六臣)가 모두 한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꿈같은 시절을 우울하게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육신의 수급을 거두어 암장하던 그 손으로 천지지간의 형상과 이치를 꿰뚫는 시를 내갈기고 술을 마시고 세상을 향해 꾸지람을 퍼부어 대던 것 역시 매월당의 삶이었을 터.

새로 돋은 반달이 나뭇가지 위에 뜨니
산사의 저녁종이 울리기 시작하네.
달그림자 아른아른 찬이슬에 젖는데
뜰에는 서늘한 기운 창틈으로 스미네.

무량사 천왕문 건너편에 '매월당 시비'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높고 가지가 성성하여 빛조차 들지 않는 공간, 소나무 아래 직사각형의 시비가 있고 그 앞으로 길손들이 막돌로 쌓은 작은 탑들이 앙증맞게 놓여 있습니다. 이 시비는 1983년 가을에 전국시비건립동호회가 성금을 모아 세운 것으로 시의 내용은 정한모 선생이 번역했고 글씨는 김충현 선생의 솜씨입니다.

높거나 웅장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매월당의 시비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가면 부도밭입니다. 거기 매월당의 부도와 비가 있습니다. 부도는 옹기종기 정담을 나누듯 앉아 있는 다른 부도들에 비해 키가 더 크고 조각이 섬세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슬퍼 보입니다. 양식은 석종이라기보다는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을 따랐습니다.

중대석에 어우러진 두 마리 용은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마리의 용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역사라는 이름의 여의주를 희롱하는 것 같습니다.

무량사 부도밭의 시간은 부드러워서 아무리 날 선 아픔도 시나브로 아물게 합니다. 공간은 그윽하여서 한 지식인이 품어야 했던 시대적 고통을 조금씩 새로운 희망의 공덕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거기, 매월당의 부도가 우뚝 서 있습니다.

부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매월당의 아픔과 문학 그리고 꿈을 읽어 봅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탐욕의 무리들이 지어내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 빌붙어 사는 민초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생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고 자연과 더불어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역하고 거스르고 뒤집고 꾸미는 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의 문학은 그 모순과 아픔을 뿌리로 삼았을지라도 언제나 밝은 쪽을 향해 마음의 거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되비친 그의 문학은 때로는 소담스런 율시로 드러나고 때로는 날카로운 문장으로 피어났습니다. 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사람 사는 향기를 흩뿌리는 저 <금오신화(金鳥新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우리 문학사에 깊은 시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남아 전하는 것은 2200여 수. 울분의 시간을 시로 달랬고 통한의 현실을 시로 썼던 매월당. 매월당은 50세 이후 한 때 설악산에 있었는데 그 때 '나의 삶(我生)'이란 시를 지어 스스로의 생애를 더듬었습니다.

태어나 사람 꼴 취하였거늘
어찌해서 사람 도리 못다하였나.
젊어선 명리를 일삼았고
장년이 되어선 자빠지고 넘어졌네.
고요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걸
진작 깨닫지 못하였다니.
후회해도 지난 일을 돌이킬 수 없기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을 방아 찧듯 쳐댄다.
충도 효도 못 이루었거늘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고 찾으랴.

살아서는 하나의 죄인
죽어서는 궁귀가 되리라만
헛된 이름 또 일어나서
돌아보면 번뇌만 더하누나.
나 죽은 뒤에 내 무덤에 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 준다면
나의 마음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품은 뜻을 천 년 뒤에 알아주리.

임연태 (시인 · 본지 논설위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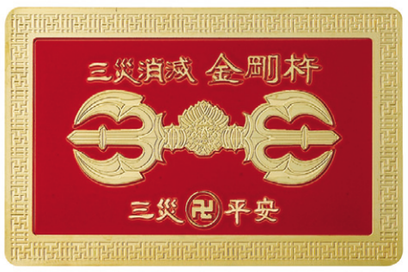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6〉

참된 법은 함이 없다
〈爲〉

학승이 물었다.
"말도 없고 뜻도 없어야 비로소 구(句)를 얻는다는데, 이미 무언(無言)이라면서 또 무슨 구(句)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높아도 위험하지 않고 가득 차도 넘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지금 화상께서는 가득차고 계시는 것입니까? 넘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가 내게 묻는데 어쩌겠는가?"

問 無言無意 始稱得句 已是無言 喚什麽作句
師云 高而不危滿而不溢
學云 卽今和尙是滿是溢
師云 爭奈你問我

무언무의(無言無意)해야 일구(一句)를 얻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일상사에서 매번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모두 세속의 이치에 부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허망한 것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을 끊어버리고 저절로 온갖 생각조차 무너져버려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한 생각도 일어나지 말아야 가히 선과 도에 대해 한 마디 던져볼 일구(一句)를 얻게 된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다. 무언무의라고 해놓고 다시 또 일구를 얻는다고 했으니 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무언무의 뒤에 나온 일구는 좀 높고 가득 차 보여도 위험하지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무언무의를 거치지 않는 일구는 거칠고 투박한 일구이므로 사람을 상하게 하나, 무언무의의 시간을 거친 일구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일구라는 것이다.

학인은 "그러면 지금 화상의 말씀은 가득차고 계시는 것입니까? 넘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대해 "그것은 네가 판단해라. 나는 단지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 내 대답은 자네를 위협하거나 자네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아" 라는 뜻으로 대답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신령스러움(靈)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깨끗한 땅 위에 한 무더기 똥을 눈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확실한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노승을 뇌란(惱亂)케 하지 마라."

問 如何是靈者
師云 淨地上屙一堆屎
學云 請和尙的旨
師云 莫惱亂老僧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스러움'을 높이 떠받든다. 불교에서는 주로 사리의 영묘함을 선전하고 있고, 타 종교에서는 성모가 눈물을 흘린다거나 성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신령스러움을 높이 부각해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한 무더기 똥을 예쁘게 포장해 사람을 속이는 일밖에 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새롭고 신비함에 잘 이끌리고 동경해 따르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신령스러움이란 잘 살펴보면 모두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

무언무의해야 일구를 얻는다
신령스러움이란 보잘 것 없는 것
깨닫지 못해도 중생은 원래가 부처

자세히 보면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사람의 눈동자처럼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신령스러운 것도 없다. 자신 속의 신령스러움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되는 것이다. 이참에 적어도 똥을 포장한 것에 제발 이끌리지 말기 바란다.

학승이 질문했다.
"법신은 무위(無爲)이므로 모든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래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주 스님은 웃었다.

問 法身 無爲 不墮諸數 還許道也無
師云 作麽生道
學云 與麽卽不道也
師笑之

법신은 여기서는 진법(眞法)으로 보면 될 것이다. 참된 법은 함(爲)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행동을 보인다거나, 한 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참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에 대해 뭐라고 한 마디쯤은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학승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이를 것인가? 참된 법은 무위라고 했는데, 무슨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단 말인가? 글자 그대로야. 절대 말하지 못해" 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납자들은 깊은 곳을 즉시 들여다봐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중생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야."
학승이 물었다.
"도대체 누가 중생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물어봐라, 물어봐!"

問 如何是佛 如何是衆生
師云 衆生卽是佛 佛卽是衆生
學云 未審兩箇那箇是衆生
師云 問問

중생과 부처에 대해 〈조주록〉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조주 스님은 매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생이 부처'라는 것이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중생이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 이해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중생은 닦으나 안 닦으나,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원래 부처이다. 중생을 놔두고 부처는 따로 없다. 이것 외에는 만년을 지나도록 물어도 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부처와 중생을 구별한다면 스스로 위대한 부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처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실은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중생은 원래부터 부처이다.

〈법화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탕자가 스스로 거부장자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거부장자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스스로 거부장자의 아들임을 모를 때도 사실은 거부장자의 아들이었다. 그처럼 중생은 지금 그대로 부처이다. 이 사실을 알면 된다. 그러면 그대가 부처이다.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불교는 이처럼 쉽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1

염불의 의미를 밝히다

달마 대사께서 염불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셨다.

"염불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니라. 지극한 대승의 도리를 바르다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삿되다 하는데 바른 생각은 반드시 참된 즐거움을 얻겠지만 삿된 생각이 어찌 그것을 통달하리요. '불(佛)'은 몸과 마음을 깨우치고 살펴서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념(念)'은 기억한다는 것이니라. 계행을 기억해 지니며 잊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니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바른 생각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 있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니라. 통발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말로 뜻을 얻는데 뜻을 알고 나면 말을 잊어버리듯이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하느니라. 만약 생각에 실체(진실한 것)가 없이 입으로 헛된 명호만 부른다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외운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이름이나 뜻이 천지 차이 이듯이 입에 있으면 외운다 하고 마음에 있으면 생각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각행의 문이고, 외우는 것은 입 속에 있는지라 음성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니라. 상에 집착해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원문]

因筌求魚 得魚忘筌 因言得意 得意忘言 旣稱念佛之名 須行念佛之體 若念無實體 口誦空名

徒自虛功 有何成益 且如誦之與念 名義縣殊 在口曰誦 在心曰念 故知念從心起 名爲覺行之門

誦在口中 卽是音聲之相 執相求福 終無是乎

[해설]

대승(大乘)은 큰 수레를 비유한 것이고 소승(小乘)은 작은 수레를 비유한 것입니다. 수레가 크다면 사람을 많이 태울 수가 있습니다.

대승은 우주를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것은 삿된 생각입니다.

정진할 때 내가 지장보살님을 찾고 있다면 지장보살 하는 놈이 우주와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일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할 때 큰 도를 얻는 것이지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대상을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됨을 말합니다. 대상을 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행 한 것에 대해 집착이 생기게 돼 그것이 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을 할 때에도 마음에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 없이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부처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지심체요절〉에 보면 달마 스님의 스승이신 반야다라존자가 궁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대중들은 모두 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반야다라 존자는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야다라존자는 "오온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숨을 들이 쉬고 내쉴 때 팔만사천 경전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즉, 팔만사천 경전의 가르침이 하나의 마음자리를 일러 준 것이고, 반야다라 존자는 경전에 나온 참 뜻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권의 경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타고 간 배는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達磨坐禪圖3 · 69x 46cm. 동성 스님 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은 염불을 할 때 소리와 형상에 끄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생각으로는 분별하고 있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염불할 때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념으로 염불하며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야지 입으로 헛된 명호만 부른다면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형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형상이 없는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한다면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고 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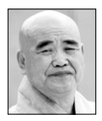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①

불교에는 변두리가 없다

이번 호부터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를 10회에 걸쳐 싣습니다. 향봉 스님은 지난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장에서 <육조단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향봉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중도다. 중도는 유교의 중용과 다르다. 불교 중도는 좌우가 없고 변두리가 없다. 내가 어느 곳에 서있어도 세상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임제 선사가 일찍이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바로 불교의 중도를 풀이한 것"이라는 말로 강의를 하게 된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향봉 스님은 1962년 출가했으며, 90년대 초 불교신문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도, 티벳트, 네팔, 중국에서 15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정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익산 사자암에 주석하고 있으며 <사람의 길>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등 20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오법전의(悟法傳依)

<육조단경>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혜능 대사가 진리를 깨달아 가사를 전수받는 교훈적 · 전설적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장은 '오법전의(悟法傳依)'로 육조 혜능 대사가 법(法)을 깨닫고 가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혜능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땔나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땔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됐다. 당시 22세였던 혜능은 <금강경> 한 구절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 후 혜능은 구도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오조 홍인 선사를 만나러 간다.

홍인 선사는 자신을 찾아온 혜능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려 왔느냐"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혜능은 "영남에서 왔으며 깨달음을 이뤄 부처가 되기 위해 찾아 왔다"고 대답한다. 이에 홍인 선사는 "영남은 버려진 땅이라 무식꾼들이 많은 곳"이라고 핀잔을 준다. 하지만 혜능은 오히려 당당하게 "부처를 이루는데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홍인 대사는 혜능이 큰 법기(法器)임을 알아차리고 후원에서 방아 찧는 일을 하도록 허락한다. 당시 오조 홍인 선사의 문하에는 교수사인 신수 스님을 비롯해 70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정진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조 홍인 선사가 대중을 모아, 그 동안의 마음공부를 게송으로 담아오면 이를 점검해 육조로 삼겠다고 선포한다. 당시 700명 대중의 교수사이던 신수 스님은 며칠 밤을 궁리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벽에 붙여놓는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時時勤佛式)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莫使有塵埃)

홍인 선사는 벽에 붙어있는 게송을 보고 대중들에게 칭찬하며 게송처럼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대중들이 너나없이 게송을 외우고 다니자 방앗간에서 일하던 혜능이 이 게송을 듣게 됐다. 혜능은 신수의 게송이 미흡함을 알아차리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게송을 대필로 써서 벽에 붙인다.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心是菩提樹)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身爲明鏡臺)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明鏡本淸淨)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河處染塵埃)

오조 홍인 선사는 혜능 행자의 게송을 보고 단박에 열린 마음을 알아차렸으나 대중이 시기할 것을 우려해 '아직은 덜 열린 게송'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오조 홍인 선사는 그날 밤 행자 혜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금강경>에 담긴 진리의 세계에 대해 설법해 준다. 그리곤 혜능에게 법을 상징하는 가사를 전수한다. 홍인 선사는 육조가 된 혜능을 구강역의 나루터까지 배웅해 주고 배를 태워 떠나보낸다. 오조 홍인 선사와 헤어진 육조 혜능은 두 달 가량 지나 대유령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

한편 행자 혜능에게 가사가 전해짐을 알게 된 대중들은 크게 동요하며, 가사를 뺏으러 혜능의 뒤를 쫓아온다. 다른 대중들은 두 달이 돼도 혜능을 찾지 못하자 다들 돌아갔으나 장군 출신인 진혜명이라는 스님만이 대유령까지 쫓아와 혜능을 만난다. 혜능은 진혜명에게 가사를 건네려 하자, 혜명은 법을 구하려 왔을 뿐 가사를 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혜능은 혜명에게 법을 전하고 북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당부한다.

위의 내용이 바로 <육조단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래 <육조단경>은 덕이본, 종보본, 돈황본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덕이본이, 일본에서는 종보본이 많이 유포돼 왔으나 요즘에는 가장 기록 연대가 앞선 돈황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이본과 종보본이 돈황본에 비해 문학적으로 다듬어지며 재미를 더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의는 교재에 나오지 않는 돈황본이나, 덕이본에 나오는 내용까지 곁들여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럼 덕이본에 있으나 돈황본에는 없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혜능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主 而生其心) 구절에서 발심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돈황본에서는 <금강경>만 등장한다.

2. 덕이본에서는 의발을 뺏으러온 혜명에게 불사선 불사악(不思善 不思惡)하라는 법문을 혜능이 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돈황본에서는 그냥 법문한 것으로 돼있다.

3. 덕이본에서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며,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담겨있으나, 돈황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4. 신수 스님의 게송에 대해 혜능의 대응이 덕이본에서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로, 돈황본에서는 불성상청정(佛性嘗淸淨)으로 돼있다.

하지만 큰 틀의 뿌리와 나무에서 풍겨오는 교훈적인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황본에는 없는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불사선 불사악하라는 구절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경구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도 해석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려든 교수든 불교학이든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主 而生其心)에 대해서 '마땅히 머무는바 없이 그 생각을 낼지어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마땅히 거기에 머물지 말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깨달은 사람을 위해 설해진 경전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사람을 인도해가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바 없이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은 일을 해 마친 성자(聖者)들의 몫입니다. 화두로 생각을 모아가는데도 온갖 망상과 번뇌가 머릿속에서 생명을 거듭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 화두를 챙겨보지만 습관의 고리, 집착의 병으로 인해 온갖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화두 사이사이 목마름과 헐떡임, 흔들림 등의 온갖 번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생각의 윤회는 거듭되기 마련입니다. 중생이 앓는 모든 병의 원인은 집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마땅히 거기에 머물지 말라'가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불사선 불사악(不思善 不思惡)은 '착함도 생각지 말고 악함도 생각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사선 불사악에는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 원리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의 원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랍인들은 '중(中)은 정(正)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팔정도(八正道)가 곧 중도(中道)다'라고 거듭 강조한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불교의 중도에는 변두리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인간선언의 존엄성과 마음이 부처다(卽心是佛)의 인불사상(人佛思想) 그리고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최후의 유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중도적인 삶을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유교의 중용(中庸)과 불교의 중도(中道)를 형제사이로 알고 있는 한 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손자에는 '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중용>입니다. 자사는 중용에서 덕과 도를 인간 행위의 최고기준으로 삼을 것을 가르칩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다섯 가지 덕목을 삶의 지표로 삼되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중도사상은 유교의 중용사상과는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유교의 중용이 좌우불락(左右不落)사상이라면, 불교의 중도는 양변무애(兩辺無碍)이자 무변중심(無辺中心)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해가 지는 방향을 서쪽이라 칭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를 동(東)라 하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서(西)라고 합니까? 정답은 누구나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해지는 방향을 서쪽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서, 남, 북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동서남북의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으며 동서남북의 중앙인 나는 곧 우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에는 좌우가 없고 변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사선 불사악도 중도적인 안목과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또한 바른 중도를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첫 강의가 열린 5월 12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장에는 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마음이 보리수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

Q/A 신수 스님의 게송도 훌륭하지 않나?

<육조단경>에서만 보면 신수 스님의 게송은 뒷전이고, 혜능 대사의 게송만 훌륭하다 칭합니다. 하지만 재가자 입장에서 보면 신수 스님의 게송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돼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각색돼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교의 이야기를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의 깨달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신수 대사의 말도 일반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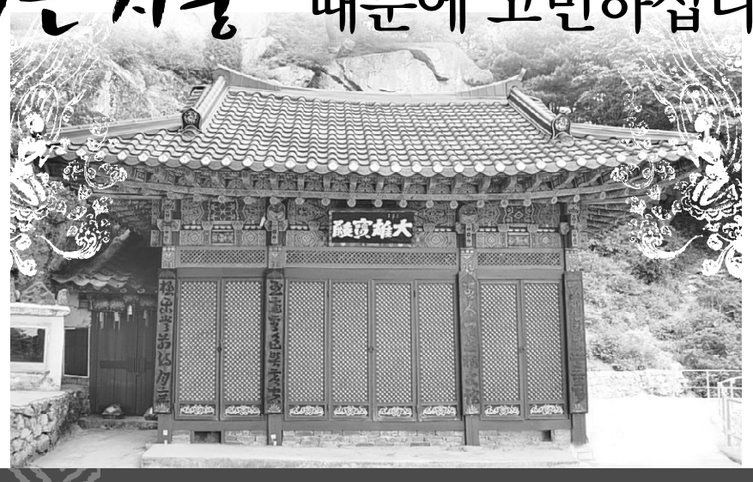
초조에서 육조까지 알겠지만, 육조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육조 이후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기록에는 초조에서부터 28조까지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입니다. 육조 이후에는 법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수나 혜능이나 모두 마음의 성품,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불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부처님은 모든 말씀을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육조단경>에서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경전을 통해 감동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경전에 다가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만 어떻게 마음을 던져서 깨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일거수 일투족이 동중선인 청담 스님 가르침 실천

도선사 한주 동광 스님



호국참회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삼각산 도선사에는 어느 절 보다 포교, 복지에 능한 스님들이 많다. 이는 수좌면서도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후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며 조계종 종무행정의 기틀을 다진 청담(靑潭, 1902~1971) 스님의 가풍(家風) 탓이리라.

도선사 한주 동광 스님도 그러한 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불교방송 이사, 청담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중앙종회 의원,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소임을 맡아 포교 및 복지 · 인재불사에 헌신하고 있다.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치면서도 언제나 고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동광 스님은 은사인 청담 스님처럼 하심과 자비행이 몸에 배인 스님이다.

동광 스님은 ...
1942년 서울 출생. 1970년 도선사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71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도선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불교방송 이사, 청담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선사 한주, 청담장학문화재단이사장, 중앙종회 의원,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물고기에게도 법문하는 청담 스님에 큰 감화

계곡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동광 스님의 처소에 다가서니, 스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나는 선지식도 아니고, 법문할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청담 스님 문하에서 인욕, 하심공부를 몸으로 익힌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942년 서울 시내의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동광 스님은 어린 시절, 부친의 고향인 상주에서 자랐다. 상주중, 상주농고를 다닐 때 불교학생회 '룸비니'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룸비니 총재인 청담 스님을 이때 알게 됐다. <금강경>을 비롯한 경전에도 밝았던 부친과 칠순이 넘어서도 <천수경> 독송과 염불을 쉬지 않고 봉정암 순례까지 하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일보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다.

청담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게 된 것은 중앙대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과 몸이 좋지 않아 휴학하고 있을 때였다. 친구를 통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청담 스님을 뵙게 된 것. 1970년 3월, 조계사 총무원장실에서 첫 인사를 드리자, 청담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니, 뭐하러 왔나?"

"부처님 깨달음을 알아서 동방에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러자 청담 스님은 "니, 밥 못 먹어서 밥 얻어 먹으러 온 거 아니지?"하시며, '동방의 빛'이란 뜻을 지닌 동광(東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신도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청담 스님은 매사에 강직했으며, 제자들에게는 하심과 검소함, 부지런함을 말없이 보여준 엄격한 분이었다. 총무원장 재임시에도 새벽예불과 108배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솔선수범한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종단 정화와 불교 중흥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일생을 회향했다. 열반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의 가슴에 하심, 인욕, 정진 바라밀의 수범으로 기억되어 자비보살, 인욕보살로 존경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특히 청담 스님은 중생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 가지가지의 설법으로 긴 법문을 하기로 유명했다. 서 너 시간 법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경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설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칠순의 고령에도 열반하는 순간까지 법문을 쉬지 않은 청담 스님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였다.

제자들이나 초청하는 인사들이 설법을 중단하시길 청하면, "아닙니다. 어디 사람에게만 법문을 하나요. 삼라만상 우주법계에다 하지요."라고 하셨단다.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송장 앞에서도 법문을 했으며, 설법하다가 소변 보러 갔다 올 수 없다시며 기저귀를 차고 법문했다는 전설적인 일화는 청담 스님의 중생구제의 원력을 엿보게 한다.

청담 스님 유지 이어 진주에 청담기념관 설립 발원

동광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청담 스님이 입적하기 1주일 전 대구, 안동, 부산까지 스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면서 스승의 유훈과도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부산 범어사에서 열리는 국제보살계 수계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청담 스님은 처음으로 열린 조계종 중진스님 재교육에 참석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화계사 법당에서 청담 스님은 "앞으로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30~50년 후에 사회인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수행과 포교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동화사 주지 경산 스님 진산식에 참석하러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저녁이었다. 동광 스님이 초를 사서 밤길을 밝히며 산길을 걷는데, 청담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처음 마음 먹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윽고,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 수곽(水槨)에 이르자 남은 초를 끄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초를 밝혀 놓으라고 하셨다. 사소한듯 보이는 이타행에 동광 스님은 느낀 바가 적지 않았다.

다음 날, 청담 스님은 안동교육대학 학생회의 초청으로 법문을 하러 가게 되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약속시간을 겨우 맞춰서 법문을 시작했는데, 대학생들이 크게 환희심을 내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려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쉬지 않고 법문했다.

안동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새벽, 범어사 국제보살계 수계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갔다. 대만의 고승 백성(白聖) 스님과 베트남의 챠오 스님 등 외국 고승 20명과 국내 고승 30여 명이 대거 참석한 3일간의 국제행사를 무사히 거행하자, 정부에서는 당시 제일 큰 군함으로 각국 고승들을 모시고 한산섬까지 유람을 시켜주었다. 바닷바람이 불자 대부분의 스님들이 실내로 들어갔는데, 청담 스님은 홀로 주장자를 짚고 군함 말미에서 바닷물을 응시하며 수중중생을 위해 염불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동광 스님은 큰 감명을 받았다.

"물고기들에게까지 법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님께서 만 중생을 위해 법을 전하는 구나. '이것이 도인의 자비심이로구나' 하고 감탄했지요."

국제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하고 상경한 후 3일만에 청담 스님이 입적하시자, 동광 스님은 스승을 시봉한 시간들이 마치 부처님께서 길에서 열반하셨듯이 마지막 전법의 여정에서 유훈을 남긴 것이었음을 실감했다. 특히 지방으로 가시기 며칠 전, 밤을 세워 '光明(광명)'이란 휘호를 쓰시고 서명 위에 '般涅槃(반열반)'이란 글자를 써 당신의 열반을 암시했다는 것이 동광 스님이 증언이다.

"그날따라 갈아놓은 먹이 남으면 종이를 준비하고, 종이가 남으면 먹을 또 갈도록 해서 먹과 종이가 딱 들어맞을 때까지 '광명'이란 글자를 쓰셔서 어느덧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제가 먹을 갈면서 '글씨가 쇠바퀴 굴러가듯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하니 스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지요."

은사에 대한 동광 스님의 그리움과 존경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른다. 이제 화제를 돌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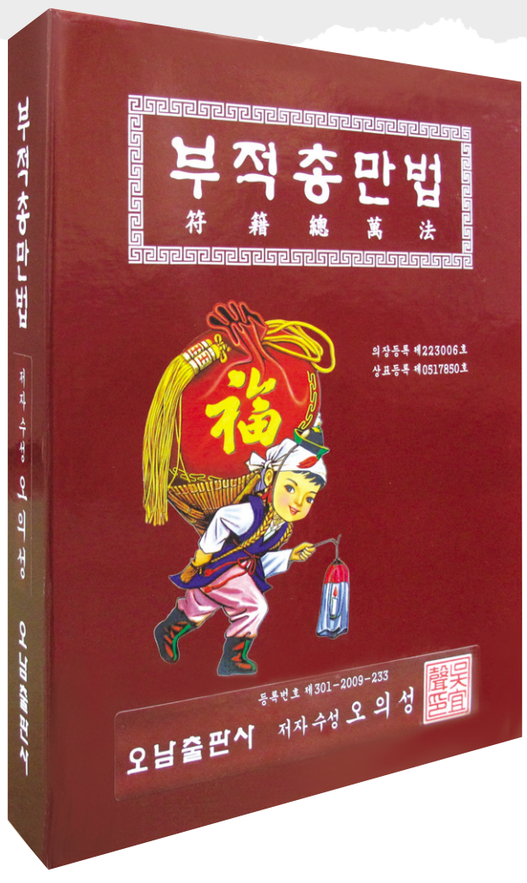
"1998년 도선사 주지 재임 때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란 법문집을 내신 걸로 압니다. 미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스님은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아서 누리시는지요?"

"걸림 없이 살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대자유인이신 부처님처럼 자유롭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인지 욕심 내지 않고 조용히 부처님 말씀 전하면서 회향하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으로 인재양성과 포교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이러한 불사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인지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국민학교 시절, 미군이 학교에 주둔해 책 · 걸상을 화롯불의 장작으로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교실이 없어지자 마을 이곳저곳에서 공부하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는 집안이 가난해 공납금을 내지 못해서 교실에서 여러 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큰스님이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청소년포교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문도 스님들과 도선사 신도들이 힘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진주산업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 12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者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성공과 건강을 돌려주는 우주의 대기운!

빙의치유의 정석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 직장인,자영업자,종교인,학생,가정주부,사업가,군인,연예인, 교포 등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아파도 외로워도 혼자만이 감수하던 빙의 치료와 구원의 결정판!
빙의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명쾌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포기한 이시대의 냉가슴을 후련하게 달래주는 성공치유의 선화도와 빙의진단요령, 성공을 이끄는 우주의 대기운!

이책은 오랜동안 빙의와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촛대 4개 모두에서 촛불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정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금메달을 향하는 선수에게 모진 훈련이 기다리듯 저자 역시 무지 힘든 역경과 시련의 시험대에서 대우주의 기운과 선화도의 대기운을 아픈이 들에게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나누어 주고자 오늘도 분주하게 상담실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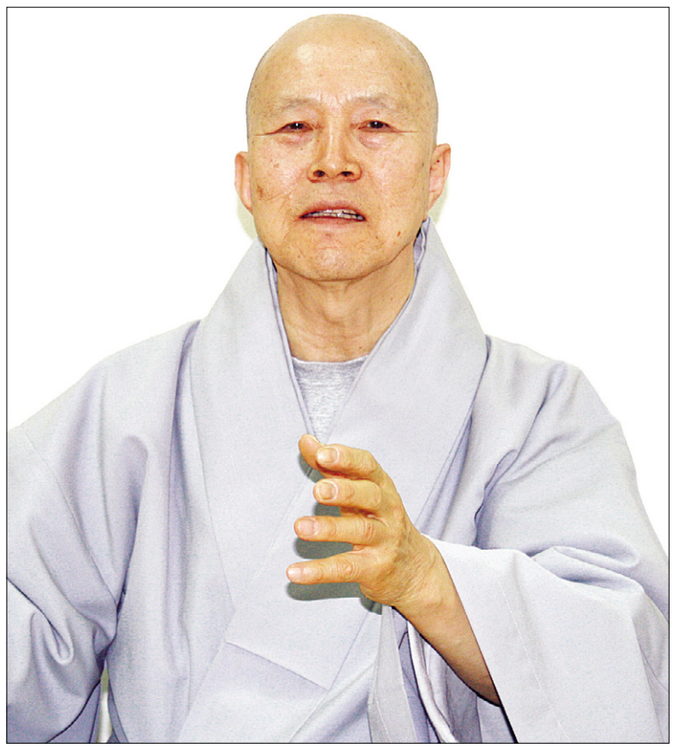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대우주의 기운으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다듬고자 불철주야 애써온 저자의 변함없는 진실함을 기다리다 기적같은 환희를 체험한 회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못이겨 드디어 책을 저술하게 된 저자는 그저 문의차 축하차 걸려오는 전화에도 겸손한 자세로 그저 대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어 책을 출간하게된 것이라고만 답한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모르지만 실생활에는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으며 골만 잘 집어넣는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왜 골을 잘 집어넣게 되었는지,그리고 어떻게 해야 골도 잘넣고, 골이 잘 넣어지면 주변동료들과 팬들과도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질 문명만 앞서고 정신 문명이 핍박해 질수록 늘어만 가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줄기 등대불같은 이 책이야말로 빙의분야에 새로운 정석으로 다가가는 최상의 필독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10년 한국 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었다.

책 주문 : 전화 02-562-1880, 팩스 02-555-0103 www.spaceri.com 우주의기 연구소 043)237-7588

‘평상심시도’로 인욕 수행



회 졸업생인 청담 대종사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설립된 진주산업대 청담사상연구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광 스님은 그동안 청담장학문화재단을 통해 학술세미나와 연구지 발간, 장학사업 등을 후원해 왔다. 청담대종사선사비를 진주산업대 교정에 세우는 등 스승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불사를 주도하거나 후원해 온 동광 스님은 문도회와 신도들의 힘을 모아 진주에 (가칭)청담스님기념관 설립을 발원하고 있다. 지역민 누구나 와서 공연과 법회,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불교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40년 전, 동광 스님이 출가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불심은 오늘날보다 깊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요즘,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 하며 고통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사상적,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고통받는 근본 이유는 우리 국민의 공업(共業)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스님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누구나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늘 지방 어디를 가시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회중시계의 나침반으로 도선사 석불전을 향해 몸소 108배를 하셨지요.”

좌선할 때 우뚝한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해서 ‘올연(兀然) 수좌’란 별명을 얻은 청담 스님은 당시 만주에 주석하던 경허 스님의 수제자 수월 스님을 친견해 지도 · 점검을 받은 열혈 수좌였다. 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주도하는 등 치열한 구도과정을 거쳐 1934년 수덕사 만공 선사와의 선문답으로 깨침을 인가받은 선사이기도 하다. 그런 분이 입적하는 순간까지 108참회를 한 것은 개인의 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업장소멸과 행복을 기원한 보살행이었다는 것이 동광 스님의 견해다.

좌선과 염불과 같은 수행과 함께 삶속에서 보살행을 펼치며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복혜쌍수(福慧雙修)의 중요성을 스승으로부터 배운 동광 스님은 신도들에게 수시로 복짓는(作福) 일을 강조한다.

“의상 스님의 법성게(法性偈)에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가운데서(能仁海印三昧中) 뜻대로 부사의함을 나타내고(繁出如意不思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하니(雨寶益生滿虛空) 중생들은 그릇따라 이익을 얻네(衆生隨器得利益)’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래의 자비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데, 중생이 받아들이는 그 과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중생심으로 부처님의 평등한 복전(福田)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밭은 하나인데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는 진실한 불자가 돼야 합니다.”

동광 스님은 복을 짓고 받는 것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비유해 거듭 설명했다.

“에너지는 일정하며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물리법칙이 있듯이, 복을 받기만 하고 짓지 않으면 업이 되고 맙니다. 늘 물질적, 정신적으로 욕심을 비우고 살면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법정 스님의 무소유(無所有) 정신은 필요 없는 탐진치를 버리고 좋은 생각은 가지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행(言行) 그대로가 법문이었던 스승의 유훈 그대로 일하고 포교하는 과정에서 시비분별을 초월한 평상심(平常心)을 실현하기 노력한 동광 스님은 1984년 전후,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며 불 · 보살의 가피를 체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젊을 때 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 예불을 마친 후 코와 입으로 혈담이 쏟아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는데, 1주일 후 퇴원한 뒤 6개월만에 ‘음성’ 판정이 나와 부처님 가피력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기간을 정해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소임을 보면서도 새벽예불을 빠뜨리지 않고, 아침에 경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살아온 공덕이 아닌가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생사를 몸으로 겪은 후 삶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생사가 본래 없는 성품자리에 대한 믿음도 더욱 깊어졌다. 이미 고등학생 시절 <금강경>을 100독 하고,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보조 국사의 어록을 볼 정도로 선(禪)과 깊은 인연을 맺은 동광 스님은 요즘도 <임제록>과 <금강경오가해>를 수시로 독송하며 생활속의 마음공부를 놓지 않고 있다.

“은사스님은 좌선만을 강조하지 않고 일거수 일투족이 모범이 되는 동중선(動中禪)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에 앉아서 보면 ‘골짜기 물이 대숲을 지나니 물이 푸르고, 바람이 꽃을 스치니 향기롭다’고 하는 시어가 실감이 납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게 공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담 스님이 입적하기 직전 마지막 1년을 시봉하던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동광 스님이 출가생활을 돌아본 소감은 어떨까?

“하루 해가 지면 다리 뻗고 통곡한다던 고인들의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큰스님 유지를 잇고자 애는 썼지만 작은 힘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을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고 용맹정진 하지 못한 회한(悔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광 스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다고 한다. “스님을 뵈면 주위가 환해집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동광 스님은 환희심이 나고 더욱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인다고 한다. 늘 스스로 하심하면서 자비로운 얼굴, 조용한 언행으로 주변을 밝고 행복하게 하는 구도자는 다름 아닌 대승보살이다. 수행을 생활 밖에서, 산속에서만 찾으려 하는 수행자는 ‘평상심이도’라고 한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문 선사는 <무문관>에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이렇게 노래했다.

“봄에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이 있으며, 여름은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이 있다. 만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호시절(好時節)이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4. 몽골 담마자브 스님

달라이 라마 밑에서 수행정진… 몽골 불교 알리기 첨병

1996년 몽골의 한 교육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건물 없이 창고 하나를 빌려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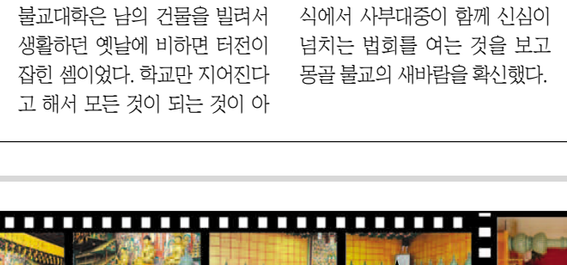
안내를 맡던 몽골 나른삼보 박사는 말했다.

“몽골은 70년 이상 소련의 지배를 받아 언어는 있되 문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체데브 박사와 천문대장 테르비쓰 박사, 과학기술대학의 닥바도르찌 박사 등 7~8명에 불과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몽골문자까지 없어져 버리게 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대학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몽골은 불교탄압으로 승려들은 강제환속 · 암살을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다. 1990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전통 문화 복원의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사회주의 시절 탄압받았던 전통종교인 불교와 민중 신앙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몽골에서는 불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일반 불교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다. 당시 개신교는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초 · 중 · 고교, 대학 등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불교계는 학교 하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대학 설립에 원력을 세운 트무르츠 현 몽골 문교과학부장관과 나른삼보 사회과학원 교수, 론승스림 다시점트 박사, 체텐람바 대통령 보좌관 등과 뜻을 모았다.

불교대학 설립의 꿈은 2001년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이치란 박사의 소개로 몽골 불교대표이자 세계불교도우회 지역센터 회장 담마자브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화됐다. 담마자브 스님은 동진출가해 스리랑카에 유학하고 달라이 라마 밑에서 수십 년을 수행 정진했다. 스님은 외국어를 잘 할뿐만 아니라 식견이 넓었다. 스님은 현재 세계불교도우회(WFB) 지역센터 회장으로 여러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몽골 불교를 알리고 있다.



몽골 고려사 전경.

나는 2002년 5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갔다. 담마자브 스님이 부지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자금 등의 부족으로 게르(몽골족의 이동식 집) 두 개로 불교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한 · 몽 불교문화원을 운영하고 한국어교습소를 만들어 글을 가르쳤다. 이치란 박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불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손현수 대현그룹 회장, 법왕궁 문수원 보살, 이름 모를 불자님이 5000만원 씩을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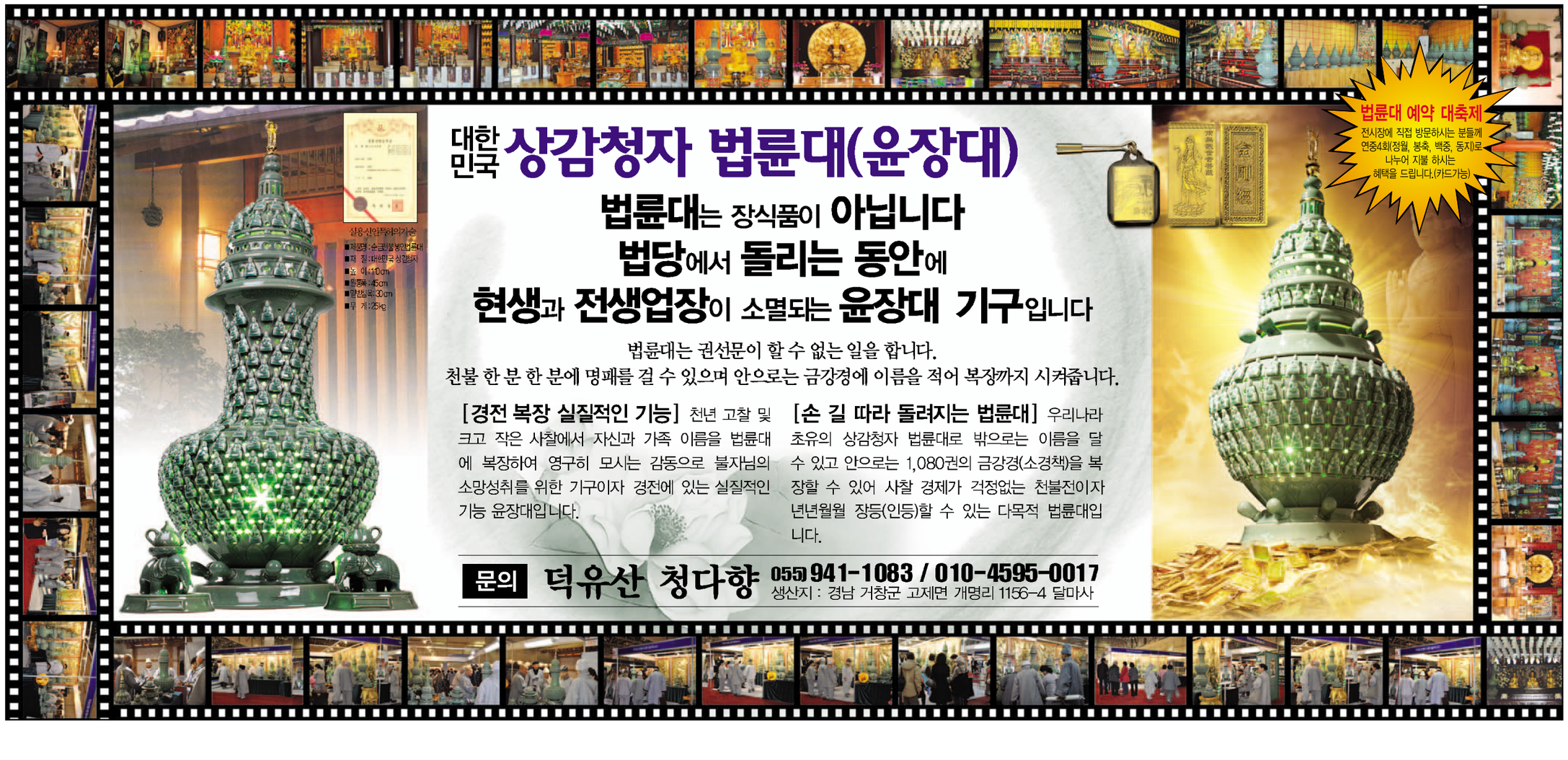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42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층당 100평)의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울란바토르 남쪽에 자리한 불교대학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생활하던 옛날에 비하면 터전이 잡힌 셈이었다. 학교만 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있어야 했다.

체데브 박사는 불교대학 초대 총장으로 학교 체계화에 노력했다. 체테브 박사는 일찍이 중국 공사와 몽골국립대학 도서관장을 지냈다. 체테브 총장은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전통불교의식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임자였다. 불교진흥원에서도 동국대 석사과정 4명과 박사과정 3명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해 몽골 불교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수료케 했다. 이 모든 일에는 담마자브 스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여러 도움으로 자리 잡힌 고려사는 몽골교민들을 위한 불교 신앙의 터전이 됐다. 현재 고려사는 지구촌공생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불자들의 몽골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의 몽골에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수많은 절이 복원되고 승려의 수도 1930년대 불교탄압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불교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최근 열린 몽골불교대학 졸업식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이 넘치는 법회를 여는 것을 보고 몽골 불교의 새바람을 확신했다.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⑲ 어깨 비대칭

체형교정은 아름다움 찾는 것

어깨의 불균형 증상은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의 경직과 근육의 손상을 유발시키는 만성적인 근 · 골격계 질환입니다. 어깨는 옆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굽은 정도에 따라 전신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증상은 좌우 견갑(어깨)뼈와 쇄골의 비대칭 및 척추의 휘어짐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 측만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어깨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깨 비대칭을 교정하는 것은 미적 관점으로 전신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필자가 미국 척추신경 의대를 졸업하고 2000년 귀국했을 당시만 해도, 체형교정의 중요성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비틀어진 체형을 바르게 만들어 주는 의사입니다"라고 설명드릴 때, 대부분 반응은 "아! 허리 아픈 사람 치료하시는 의사군요"라는 대답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최근에는 한국모델협회에서 모델의 전신 체형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일까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체형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체형교정이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깨 비대칭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비뚤어져 있네요"라고 말했을 때, 2000년 당시 사람들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비뚤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였습니다.

각종 영화제나 시상식 등에서 어깨가 시원하게 노출되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배우들의 모습, 여름에는 상체가 모두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 각종 타이트하고 섹시한 의상들이 일반인들의 어깨 비대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시원하게 노출되는 옷을 입었는데, 자신의 어깨가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비키니 수영복을 한껏 차려 입었는데, 자신의 뒷모습이 심각한 비대칭 상태라면 어떨까요? 상상이 가시지요?

필자의 체형교정 클리닉을 방문한 모델의 사례를 예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일반인들보다 노출이 심한 옷,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몸매 관리는 필수입니다. 직업상 완벽한 어깨좌우의 대칭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골반, 척추 균형 등 전신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의 고민은 완벽한 외모와 달리 좌우 어깨가 3cm이상 차이났고 견갑뼈가 돌출돼 말 못할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상급자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지적받아 스트레스가 심각하던 차에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어깨 비대칭 골격도.

체형교정 검사 결과, 이 분은 견갑골의 심한 좌우 비틀림 · 돌출 증상과 20도의 척추 휘어짐, 동시에 우측 늑골(갈비뼈)의 돌출 증상을 보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장시간 높은 하이힐 착용으로 골반의 거상(높낮이 불균형)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 분은 전형적인 어깨 비대칭과 동시에 전신 체형 불균형 증상이었습니다.

필자는 비틀림 방향을 분석해 맞춤 체형교정운동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특히 견갑뼈 심부의 깊숙하게 경직되어 풀리지 않던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 드렸습니다. 또 좌우 어깨 비대칭과 함께 유발된 척추 측만증 교정을 위한 척추 교정운동과 척추 견인 관리, 일자 목 교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좌우 어깨 비대칭의 불균형에서 확연히 호전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깨 비대칭은 목 · 어깨 · 허리의 만성적인 근육과 관절의 경직으로 인한 근 · 골격계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균형 잡힌 어깨는 노출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의 여성들에게 하나의 미용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균형한 체형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목, 어깨, 등, 허리 통증 및 복부 비만, 하체 비만, 목주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굽은 자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능, 심폐기능 등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래에 비해 비교적 키가 작은 청소년들의 경우 굽은 어깨와 자세를 반듯하게 교정해 숨은 키가 자라는(1~5cm)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⑦ 웃음이 보약

웃음과 아울러 울음도 보약이다

네 살짜리 아이는 하루 500번까지 웃는다. 이에 비해 어른은 하루 평균 15번 웃는다는 통계가 있다. 웃음은 보약이다. 한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번 성내면 그 만큼 늙는다(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말도 있을 만큼 웃음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한 방편이다. 웃음은 생명의 본래 모습을 되살려 천수를 누리게 한다.

웃음에 대한 다른 말로는 '하루 100번 웃으면 10분 동안 노를 젓는 것과 똑같은 운동효과가 있다', '웃음의 효과는 운동의 효과처럼 축적된다', '일상생활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머를 사용하면, 전염병에 대항하는 항체의 양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웃음은 분노를 삭여서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많이 웃는 사람은 호흡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된다' 등이 있다. 매일 목표를 정해서라도 웃어야 한다. 웃음 속에서만 닫혀진 마음이 열릴 수 있다. 창의력이 샘솟을 수 있다. 암에 걸렸던 어떤 일벌레 환자가 1년 내내 유머 비디오 · 넌센스 책을 보면서 웃기만 했더니 암이 다 치료됐다는 사례도 있다. 웃음은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보약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통일 신라 말~고려 초에 만들어진 비로자나불(왼쪽)과 10세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미소에서 그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보살본행경>에는 부처님의 웃음에 대한 말씀이 있다.

"세존께서 지난 세상의 보살도를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문득 미소하시니 오색 광명이 입에서 나오는데 빛이 다섯으로 나뉘어져 낱낱의 빛 끝에 무수한 빛이 나왔고, 보배 연꽃이 있으며 그 낱낱의 연꽃 위에 화신불이 법을 설하고 있었다.

한 갈래 빛이 삼계를 비추어 아라한의 과보를 증득케 하고, 한 갈래는 인간세계를 비추니 탐 · 진 · 치를 여의어 사향사과에 이르고, 아귀계를 비추니 모든 아귀들이 저절로 배가 불러지고, 축생을 비추니 악독한 마음이 사라지고, 지옥을 비추니 모든 혹독한 마음이 쉬어져 밝은 마음이 열리고…."

부처님이 한 번 미소 지으심에 온 세상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다. 웃음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 닿는 곳에 모든 고통이 쉬어진다. 웃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모든 생명의 본래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묘약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폭소를 터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 있다. 한 번의 웃음에 온 세상이 정토로 바뀔 것이란 확신으로 두 눈을 아예 질끈 감고 계신 모습이다. 웃음은 질병으로 고통 받기 이전의 본래 모습이다. 웃음은 웃을 인연을 만들고 마침내는 웃을 수밖에 없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웃음과 아울러 울음도 보약이다. 눈물은 스트레스의 배출구이다. 기쁨의 눈물은 흥분된 마음을 달래주고, 감정에 북받쳐 흘리는 눈물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연구에 의하면 감정에 북받쳐 흘린 눈물 속에는 엔돌핀 종류의 물질이 함유돼 있다. 매운 물질로 인한 눈물에는 그런 물질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울음을 참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된다.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가 많은 것은 여자들만큼 울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의 무의식은 무한한 참음의 용량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억제된 것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야 한다. 눈물이 흐를 때는 마음껏 흐르게 하여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⑲

무력과는 상관없을 법한 티벳 역사

불교에 삶의 이유가 있는 나라 티벳. 현재 티벳인들은 중국의 강제 침략에 의해 점점 중국화 돼 삶에 많은 번민을 안고 있습니다. 티벳은 무력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한 때 토번(吐蕃)제국이라 불리며 100만 이상의 대군을 호령했던 당나라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토번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번 왕조는 7~9세기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간 티벳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조였습니다. 티벳 고원의 중앙에 성립된 고대왕국 토번은 라사 남동의 야르룬부(볼기 지방)를 기점으로 근처의 여러 부족을 흡수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630년 송첸캄포 왕(재위 630~650년)이 즉위 했습니다. 송첸캄포 왕은 633년 스키타이를 평정한 후, 수도를 라사로 정하고 티벳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 통일 정권의 왕조를 당나라에서는 '토번'이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14세기 중순까지 사용됐습니다. 이는 토번의 왕이 자칭으로 성을 가지지 않았으며, 왕가와 왕족도 호칭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조의 명칭을 토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세기 경 토번제국의 갑옷.

송첸캄포 왕은 634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교환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네팔의 릿체비 왕조에 사자를 보내 브리티크 데이비(赤尊公主)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636년에는 당 태종에게 당나라의 황녀를 왕비로 맞이하고자 사자를 보냈지만, 같은 티벳의 유목민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 일은 송첸캄포 왕의 분노를 일으켜 같은 해 20만의 군사로 하여금 당의 속국이던 토욕혼을 정벌케 했습니다. 토번은 송주(현 사천성 송반현)를 요구하며 싸웠지만 당나라에 패배했습니다.

이 후 다시 태종에게 특사 가르통첸을 보내, 금 5000량을 납폐로서 주고 641년 당 태종의 조카딸인 문성 공주를 왕비로서 맞이합니다. 송첸캄포 왕은 문성 공주가 '자면의 풍습'(얼굴에 적토를 바르는 풍습)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등 공주를 정성껏 대했습니다.

문성 공주는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상을 모셨고, 브리크티 데이비 제1황후의 조캉사원 건립을 돕는 등 불심이 남달랐습니다. 문성 공주와의 결혼으로 당과의 관계를 강화한 토번은 귀족의 자제를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유학시켰습니다. 또 토번은 당을 모델로 티벳의 군사 · 행정 제도를 정돈했습니다.

토번과 당은 친한 듯 보였지만 그 후로도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7세기 초반 송첸캄포 왕에 의한 통일 이후, 북동쪽으로 티벳의 토욕혼, 남동쪽으로는 남조, 북방에서는 서역의 동서 통상로 패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했습니다.

토번은 안사의 난 이후로 국력이 약해진 당나라를 물리치고 서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실크로드의 대부분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번은 791년 치쏭 데짼의 제안으로 불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불교 지도자가 국정을 맡아 대장경도 번역됐습니다. 822년에는 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경을 확정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토번은 국내에서 불교를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고, 왕위계승 문제로 남북이 분열돼 결국 멸망했습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C785-152010.5.2611:41A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12> 가야산 4



남연군 묘 앞에 서 있는 장명등 지붕돌 너머로 보이는 가야산 석문봉.

명당의 주인 따로 있으니 만백성의 것

"해미(海美) 가야산(伽倻山)의 동남쪽은 토산(土山)이고 서북쪽은 돌산이다. 동쪽에 있는 가야사 동학(洞壑)은 곧 상고(上古) 때 상왕(象王)의 궁궐터이고 서쪽에 있는 수렴동(水簾洞)은 바위와 폭포가 뛰어나게 기이하다. 북쪽에 있는 강당동(講堂洞)과 무릉동(武陵洞)도 수석(水石)이 또한 아름다우며 아울러 마을과 아주 가까워서 살만한 곳이다. 합천 가야산보다는 못하나 또한 바닷가의 경치를 차지한 곳이다."

가야산의 산세와 그 품에 안겨 있는 가야사에 대하여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모든 부처를 일컫는데 <열반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큰 열반은 오직 큰 상왕이라야 능히 그 뜻을 다 알 것이다. 큰 상왕은 모든 부처를 말한다. (是大涅槃 唯大象王 能盡其底 大象王 謂諸佛也)"

즉, 가야산 동쪽에 있는 가야사의 주변의 골짜기들은 모든 부처들이 머물 절터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골짜기의 이름이 절골이다.

앞으로 모든 부처들이 머물 절들이 세워질 곳에 이미 있는 절마저 불태워버리고 개인과 가문의 욕망을 채우려고 묘를 썼으니, 이대(二代)에 걸쳐 임금은 배출하였으나 결국 나라를 잃은 마지막 임금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불타서 없어진 가야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성종(成宗)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가야사는 고려 공민왕 7년(1358년) 나옹 화상이 세운 것이라고 전한다고 적고 있으며, 수덕사보다 먼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덕사보다 큰 절이었던 듯하고, 가야사 보웅전에 철불이 세 분 모셔져 있었다고 하는데, 철불이라면 그 시기가 신라 말에서 고려 중기까지의 것이다. 그리고 금탑이 있는 자리에 묘를 썼다고 했는데, 같은 책에 "금탑(金塔)은 그 윗머리는 구리쇠로 쐬우고 네 모서리에 철사를 꼬아 만든 줄을 걸어 늘어뜨리고 풍경을 달았다. 그 형태가 웅장하고 만든 법이 기이하고도 교묘하여 다른 탑과 다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까이에 있는 마곡사 탑과 멀리 오대산 월정사의 탑과 같이 라마교 식 탑으로서 상륜부에 구리쇠로 보개를 씌운 부분이 빛을 받아 반사하여 번쩍거려서 금탑이라고 한 듯하다. 지금도 남연군 묘 아래쪽 가야사 절터에는 석등, 부도, 탑비 등의 깨진 조각들과 주초석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탑을 깨부수고 절을 폐한 대원군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된 그 이듬해(고종 2년, 1865년) 남연군 묘 맞은편에 있는 서원산(書院山) 기슭에 절을 지었다. 자기 아들이 임금에 오른 것에 대한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인지 보덕사(報德寺)라는 이름을 내렸다. 절의 시주자(施主者)가 큰 아들 이재면(李載冕)이니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실원찰(王室願刹)인 셈이다.

기록에 의하면, 보덕사는 "흙과 나무와 쇠붙이와 옥돌(土木金碧)로 치장하여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많은 전토(田土)와 보화(寶貨)가 내려졌다" 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보덕사는 한국전쟁 중에 불타 없어져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절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정결하고 청순한 아담한 비구니 사찰로서 호젓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보덕사 경내에는 깨진 석등(石燈)의 화사석(火舍石)이 하나 있는데 불타서 없어진 가야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몸돌이 팔각인데 네 곳에 창(窓)이 나 있고 그 사이 사이에 사천왕상(四天王像)이 조각되어 있는데, 모두 귀신을 밟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화사석의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릇이 작으면 먹을거리를 많이 담을 수 없듯이 천하명당(天下明堂)이라고 해도 그 명당을 차지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천하명당의 길지(吉地)와 승지(勝地)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난이 났을 때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동(大同)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만백성이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원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풍수지리적 관점인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기다림의 끝

조팝나무 꽃 향기가 '훅' 내 몸을 덮친다. 향기를 따라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쌀알보다도 작은 꽃잎 다섯 개로 송이를 이룬 꽃들이 가느다란 가지들을 뒤덮었다. 하얗고 긴 몸매의 조팝나무가 백여우의 꼬리가 되어 나를 유혹한다. 내 목을 휘감아 숨을 멎게 할 듯 살랑살랑 몸을 흔든다.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해 그만 발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 세상이 온통 향기롭다. 골이 흐르는 산이다. 배꽃도 배나무를 뒤덮고 복사꽃도 하늘을 물들일 듯 붉게 피어났다. 숲가의 산벚꽃도 돌담가의 라일락도 피었다. 돌층계의 양쪽가로 금낭화들이 우죽우죽 분홍꽃을 피워내 돌의 모습을 지웠다. 명자꽃 붉은 빛도 낭자한 핏방울을 돌담에 흩뿌린다.

앞산도 색깔이 다르다. 거무튀튀한 빛으로 웅크리고 있더니 어느새 푸르게 몸을 일으키고 있다. 집 주위의 나뭇가지들도 은근슬쩍 푸른빛으로 모습을 바꿨다. 앞의 참나무도 뒤의 자두나무도 도랑가의 마가목도 연초록 잎들을 흔든다.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듣는다고 해도 뭐라 할 그 누가 있겠는가? 은근한 눈길로, 나는 막 세상에 나온 잎들의 몸짓을 받아들인다. 잎들은 내가 원했으나 얻지 못한 딸의 모습이 되어 다가온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까르륵 끼륵 꺄르륵. 나를 부르며 웃음 짓는 아이, 아이들.

새잎으로 단장한 나무들은 커다란 꽃송이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모여 푸른 꽃 한 송이가 되었다. 막 세상에 나온 나뭇잎들은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햇살이 잎을 통과하며 빚어내는 푸르디푸른 빛보다 고운 얼굴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무를 꽃으로 보니 하늘로 솟을 듯 일어선 앞산도 한 송이 꽃이다. 이틀 아니 사흘, 여유롭게 잡아도 나흘 이상은 아니다. 삼사일 동안에 바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의심쩍다. 세상이 이렇게 '확'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삼사일 동안에 바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의심쩍다
세상이 이렇게 '확'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봄이라고는 했지만 겨울의 꼬리가 유난히 길게 드리웠던 날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피는 꽃은 있었고 돋아나는 새싹도 있었다. 갈 새들은 가고 올 새들은 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리 길어도 꼬리는 끝이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듯이 추위가 싹 가신 날, 나는 하루 네 장 때던 연탄을 두 장으로 줄였다. 퇴비를 뒷밭으로 나르고 난 뒤 도랑에서 얼굴을 씻고 숲과 맞닿아 있는, 집 옆 돌담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고추를 심을 밭은 내일 갈아도 늦지는 않다. 하지만 분봉은 내일이라도 시작될 일이었다.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벌통 안으로 넣어주는 벌들이 서너 마리 눈에 띄니 내 마음도 바빠진다. 벌통 하단의 입구 앞에 앉아 벌이 놀라지 않게 충격을 주지 않고 문을 떼어냈다. 손거울을 안으로 집어넣어 벌통 안을 비춰보니 벌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집을 감싸고 바글거리며 까맣게 붙어있어야 했으나 허연 부분들이 드러나 보였다. 칫솔을 사용해 바닥을 싹싹 쓸어냈다. 1㎝ 정도의 두께로 쌓인 벌집부스러기와 벌들의 사체 속에는 까만 벌레들과 함께 '느리'라고 하는 나방 애벌레도 있었다. 망설임 없이 제거하는 중에도 벌들은 뒷다리에 노란 화분을 둥그렇게 묻혀가지고 들어가 뱃속의 꿀을 비우고 꽃가루를 떼어낸 뒤 나갔다. 청소가 끝날 즈음엔 몇몇 벌들이 긴장된 몸짓으로 기어나와 위협하듯 내 주위를 날아다녔다. 아차, 부리나케 입구를 막고 벌통 앞에서 멀어졌다.

벌은 20통 남짓 되었건만 지난 가을 말벌의 습격에 희생되고 예상보다 추웠던 겨울 탓인지 세 통만 남았다. 최소한의 보살핌 속에서도 많은 꿀을 얻고자 하는 내 욕심을 견제하는 것인지 벌은 쉽게 늘지 않는다. 좀 늘었다 싶으면 올해처럼 쑥 줄곤 한다. 청소를 마치고 벌통 앞의 느릅나무에 분봉군을 받기 위한 유인 벌통 두 개까지 매달아놓으니 저녁이 가까워졌다.

저녁바람이 부는데도 드나드는 벌들의 몸짓은 멈추지 않는다. 서산 위에서 발악적으로 내뿜는 빛을 받으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밤이 올 것 같지가 않다. 날아가는 벌들을 배웅하기라도 하듯이 푸른 잎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벌보다 어린 나뭇잎이 더 좋냐고? 그런 질문엔 대답할 수가 없다. ■ 유승도 (시인)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대불교와 불서총판 운주사가 함께하는

불서도서 BEST 15

인터넷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과
여시아문 (02-2004-8213)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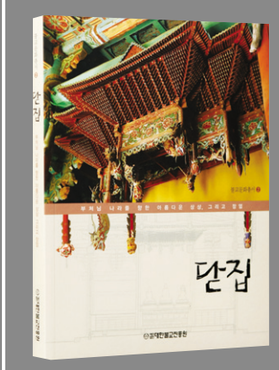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해 가는 법정 스님의 새로운 산문집

영혼을 치유하는 맑고 순수한 언어
이 시대의 경전 〈무소유〉의 감동을 잇는 또하나의 걔우침

현대인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우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짓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영적 지침서이다.
의미없는 매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선택한 삶을 이끌어나가는 방법과, 순간 속에서 영원을 발견하고 순수와 본질의 세계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준다. 내가 걸어온 길을 중간중간 되돌아보고, 내려놓음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법정 지음 | 반양장본 | 244쪽 | 값 11,500원 문학의숲



닫집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닫집은 부처님이 머무는 전각을 상징한다. 닫집에는 불교의 상징을 표현한 여러 가지 장엄물들을 장식하는데, 연꽃을 비롯해 각종 꽃 구름 용 비천상 극락조 등이 그것이다.
이책은 작가가 1년여에 걸쳐 전국에 오래된 닫집을 하나하나 찾고, 현재의 닫집 제작현황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풀어놓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전통 건축과 공예가 한데 어울린 , 입체예술의 정수인 닫집에 관하여 새롭게 배울수 있으며 또한 불교미술의 가치를다시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심대섭 · 신대현 지음 | 207쪽 | 값 20,000원 대한불교진흥원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법상스님이 전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영혼의 휴식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CD1장포함) 법상 스님의 마음학교 1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까?"**

이책은 저자가 법회와 설법, 강의와 강연 등을 정리하여 불교와 명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웹사이트 '목탁소리'에 올려온 글을 정리하여 담아냈다. 세상을 향한 나눔과 회향을 실천하면서, 자비와 사랑이라는 근원의 꽃을 피우는데 거름을 보내도록 이끄는 실천적 가르침을 건네고 있다. 아울러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영혼의 휴식을 전한다.

저자 법상 · 사진 법상 | 395쪽 | 값 15,000원 무한출판사



종정열전 1,2

종정 큰스님의 삶을 통해 인생의 혜안을 얻는다

- **종정열전은 해동고승전과 동사열전에 이은 3대 역작!**
  초대 종단 원종의 종정인 회광 사선부터 도림 법전 스님까지 모두 종정 큰스님 22분의 전기를 다룬 역작이다.
- **한국근현대불교사를 읽는다.**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불교사가 이 책에 녹아들어가 있다.
- **불교전반의 이해를 돕는 용어 해설, 사진, 깊이읽기 자료**
  종정 큰스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불교용어 설명, 100컷에 달하는 사진자료를 통해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깨달음, 수행,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정 큰스님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혜안을 갖게 한다. 탐욕과 불안으로 점철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인생의 가르침을 준다.

임혜봉 지음 | 반양장 | 전 2권 525쪽(1권) 431쪽(2권) | 값 25,000원(1권) 값 20,000원(2권) 도서출판 문화문고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이시우의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초기 경전에 기록된 인간 붓다의 위대한 인생관은 물론, 그의 뛰어난 우주관을 살펴본다.
천문학적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진리를 근본으로 삼는 자연중심사상을 지닌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진리를 펴보이는 불교가 첨단우주과학시대에 가장 알맞은 종교임을 보여준다. 붓다의 우주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만 몰입하는 인불사상으로 치우치는 한국불교도 꾸짖고 있다. 아울러 자연과 더불어살아가는 자연합일사상이 필요함을 깨우친다.

이시우 지음 | 508쪽 | 값 25,000원 민족사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침서

이 책은 저자가 환자를 만나 정신치료를 하면서 불교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치료에 응용해 갔으며,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밝혀 놓은 책이다.
즉 세상의 이치,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느끼고 체험한 마음 치유 이야기인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가 있는 곳이 있다."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자꾸 가면 그곳으로 길이 난다."는 가르침은 불교에게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지음 | 280쪽 | 값 13,800원 불광출판사



생활 속의 명상수행

빠알리대장경 앙굿따라니까야 앤 솔로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출가수행자들과 재가신자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물음을 풀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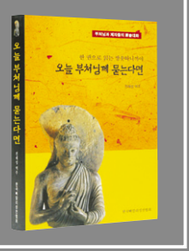
전재성역주 | 653쪽 | 신국판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쌍윳따니까야 엔솔로지 개정증보판

〈쌍윳따니까야〉에 실린 2,889개의 경 가운데 이시대에 유용한 180개의 경전을 골라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 | 신국판 | 665쪽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효림스님과 함께

금강경 읽기

세상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치유하다!

**이와 같이 무량, 무수, 무변한 중생을 멸도 하지만,
실은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어떠한 연고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효림 스님의 『금강경 읽기』. 저자가 봉국사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요일마다 '금강경'을 강의한 내용을 담아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세계관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금강경'에 비유하고 응용하고 있다. 우리가 '금강경'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금강경'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뜰 뿐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얻도록 이끌고 있다. 아울러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치유한다.

새싹 기획편집실 엮음 | 367쪽 | 값 12,000원 새싹



만화불교이야기 1

부처님 생애

Buddha's Life

**부처님의 생애를 만화로 만나다!
'만화 불교 이야기' 시리즈, 제1권 『부처님 생애』**

이 시리즈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불교' 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설명해주고 있다. 제1권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다룬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불교의 출발점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부처님의 깨달음 등을 보여준다.

만화로 구성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인간 중심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은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294쪽 | 값 9,600원 솔바람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 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중음신의 기간인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시킬 수 있는가 ?

책은 〈티벳 중음제도경〉에서 해탈 방법에 대한 중요한 경문들을 뽑은 것으로, 삶과 임종, 그리고 사망의 과정을 보다 친숙하게 인식시키고, 삶을 요달하고 죽음을 해탈할 실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존귀하신 000 영가시여 ! 당신은 지금 저를 따라 반복하여 일심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사의 유전은 모두 저의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한 ---- "

석법성 편역 | 144쪽 | 값 8,000원 운주사

블 립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비밀의 힘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새로운 방식!

**당신과 우주, 내면의 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 낸 자기계발서 『블립』**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성공작이자 〈시크릿〉에 과학적 연감을 준 'What the bleep do we know!?' 의 과학적인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 찾아낸 정보를 소개하는 책이다. 물리학의 역사와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신비의 세계를 통해 관찰자와 의식,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고,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본다.

이 책 〈블립〉은 영화제작자들과 영화에 출연했던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찬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블립〉을 통해 당신과 우주, 내면의 힘의 관계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저자 윌리암 안츠, 마크 빈센트, 벳시 체스 · 박인재 옮김 | 358쪽 | 값 15,000원 지혜의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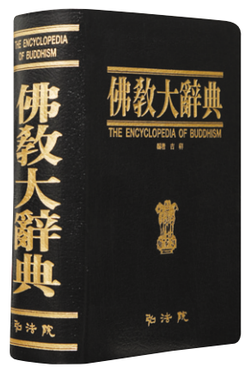


한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은 어떤 경전이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이 책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모든 것을 담은 경전, 법화경을 해설한 책이다. 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하우와 30여 년간에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요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복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둥중우의 사진 30여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록으로 주요 경전의 가르침 요약과 용어 해설을 두었다.

황명찬 지음 · 동중우 사진 | 239쪽 | 값 12,000원 지혜의나무



佛教大辭典(불교대사전)

체계적인 불교용어가 집대성 된 최고의 불교사전 !!

이 책은 저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10년이라는 긴 산고 끝에 출간된 책이다.
특징으로 첫째는 불교문헌에서 65,000여 가지의 불교용어를 모아 그것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둘째 현대일상 용어나 서양철학의 현대어 번역용어가 과거의 불교문헌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째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에 의한 문헌이 현존하는 것은 가능한 찾아내어 정확성을 기하였다. 네째 인명에 있어서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불교와 인연이 있다면 수록되었다.

특히 편찬상의 창의성과 활용성 및 방대한 양의 자료가 실려 있어 일반인 및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저자 김길상 | 2095쪽 | 값 150,000원 홍법원

진귀한 '괘불' 박물관에 나투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66호 금당사 괘불 8월 1일까지 전시

높이 8m의 대형 불화가 사찰 밖으로 나와 일반인들에게 선보여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보물 제1266호 전북 진안 금당사 괘불을 8월 1일까지 불교회화실에서 전시한다.

금당사 괘불(사진)은 높이 8.29m, 폭 4.55m로 1692년 그려진 작품이다. 괘불의 대표적 형식 중 하나인 '보살형부처'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금당사 괘불은 미륵괘불화의 대표적인 무량사 괘불(1672)과 그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 무량사 괘불은 높이 1213cm, 폭 685.5cm 크기로 비단에 채색돼 있다.

금당사 괘불은 삼베 13폭을 이어 붙인 대형의 화면에 보살의 모습으로 꽃을 들고 있는 부처를 단독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 모습은 무량사 괘불이 두 손으로 용화수(龍華樹)가지를 들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특이한 모습의 부처는 석가모니불이 꽃을 들어 진리를 나타냈다는 염화시중(拈華示衆)을 근거한 것. 또한 원형의 두광(頭光)과 거신형 광배(擧身形 光背) 형태도 동일하다.

금당사 괘불의 부처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에는 화불이 표현돼 있지 않고 중앙의 아래와 위에 2단으로 나눠 7구씩 총 14구의 화신(化神)이 표현돼있다. 그리고 그 좌우에 2마리씩 봉황(鳳凰) 4마리가 장식돼있다. 이에 반해 무량사 괘불은 보관에 항마촉지인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각기 다른 수인을 결한 화불 6구가 그려져 있다.

무량사 괘불은 다른 화불에 비해 석가모니를 큼직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미륵이 석가모니를 계승해 중생 제도를 실천할 미래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미륵불의 두광과 신광(身光) 주위를 16구의 화불(化佛)이 둘러싸고 있다.

금당사 괘불은 오색의 원형두광과 광배가 몸 전체를 감싸며, 광배 밖으로 색색의 선들이 뿜어져 나와 불꽃을 연상시킨다. 광배 바깥으로 20구의 화불이 그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배영일 학예연구사는 "보관에 화신 보살과 봉황을 표현한 작품은 미륵불을 주불로 그린 무량사 괘불이 유일하다"며 "보관의 화신보살은 <미륵경전(彌勒經典)>에 기술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 금당사 괘불의 본존이 석가모니불이 아닌 미륵불일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량사 괘불에는 화기(畵記)에 '미륵괘불탱(彌勒掛佛幀)'이라 적혀있다.

현재 미륵괘불화의 존재는 많지 않다. 미륵괘불화는 무량사 괘불 이외에 장곡사 괘불도(1673)가 존재한다. 장곡사 괘불은 미륵불을 중심에 두고 6여래, 6보살을 비롯한 많은 권속들을 화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장곡사 괘불의 미륵은 화려한 보관위에 4구의 작은 화불이 그려져 있다. 장곡사 괘불 또한 두 손으로 용화수를 잡고 있다. 미륵불의 좌우에는 대묘상보살과 법림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다보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을 비롯한 보살 십대제자 범천 제석천 사천왕 여러 천자(天子) 등 38의 권속이 표현됐다.

장곡사 괘불도의 화기에는 '영산대회괘불탱(靈山大會掛佛幀)'이라고 적혀 있으나 두광에 '미륵존불(彌勒尊佛)'이라고 적혀있어 미륵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당사 괘불은 네모에 가까운 얼굴과 좌우로 치켜 올라간 눈 꼬리에 음영법(陰影法)을 적용한 눈동자, 굳게 다문 작은 입 등에서 부처의 위엄을 보여준다. 신체는 얼굴에 비해 왜소하나 하반신을 가늘고 길게 표현돼 장대한 느낌을 준다.

의습은 붉은색 내의 위에 영락장식과 문양들을 장식한 녹색의 대의를 걸치고 있으며, 내의를 묶은 흰색 끈은 가슴에서부터 흘러내려 아랫배와 무릎부분에서 고리를 만들고 연화족좌 아래까지 이어져있다. 몸 광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연꽃을 배치했는데, 이 연꽃의 자방 부분에 28자의 범자문(梵字文)을 써 넣었다.

부처를 둘러싸고 있는 몸 광배에 범자문을 장식한 예는 이 시기에 그려진 괘불 가운데 찾아 볼 수 없어 금당사 괘불에만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다. 금당사 괘불은 당당하면서도 중후한 모습으로 신체비례가 균형을 이뤄 17~18세기 괘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금당사 괘불 하단의 화기에는 이 불화를 처음 조성할 당시의 사찰 이름이 '용출산 금당사(聳出山 金堂寺)'라고 돼있었으나, 이후에 '마이산 금당사(馬耳山 金塘寺)'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괘불은 명원(明遠) · 처헌(處軒) · 위청(偉淸) · 치헌(致軒) 등 4명의 화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괘불(掛佛)을 금당사의 협조를 얻어 특별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청곡사 괘불'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이 같은 괘불 테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괘불은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豫修齋), 49재 등과 4월 초파일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 야외나 마당에 걸어두는 대규모의 불화를 말한다. 괘불의 크기는 보통 작게는 5~6m에서 크게는 10m가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괘불화는 평소에 나무로 만든 괘불함에 말아 넣어 대웅전이나 극락전 등의 후불벽 뒤쪽 공간에 보관하다가, 대규모 야외 법회가 열릴 때면 밖으로 운반해 괘불대에 걸어놓고 의식을 행한다. 현재 전국 사찰에 소장된 괘불화는 약 100여 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존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상회상괘불화, 비로자나괘불화, 아미타괘불화, 미륵괘불화, 노사나괘불화, 지장보살괘불화 등으로 나눈다.

상령산풀이 최초 해금 연주

성의신씨 5월 28일 남산국악당서 '미래회상' 공연

'영산회상(靈山會相)'이 해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자 해금 연주가인 성의신은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영산회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공연 '미래회상'을 공연한다.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7자를 노래로 부르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가사는 빠지고 기악화된 곡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악곡으로 심오한 종교성과 철학성이 내재된 음악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류음악 중 하나인 영산회상은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연주될 뿐 즐기는 이가 많지 않다.

성의신은 대중들이 영산회상을 쉽게 즐기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알려주고자 이번 '미래회상' 공연을 기획했다.

성의신은 이번 공연에서 영산회상을 해금 중심으로 연주한다. 이 밖에 양금, 소금, 첼로, 피아노 등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들을 조우해 영산회상을 들려준다.

21세기, 해금을 통해 다양한 음악의 세계의 보여주고자 성의신은 '영산회상'이란 말 대신 '미래회상'이란 제목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성의신은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해금으로 연주되지 않았던 상령산풀이를 최초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이 함께 공연된다.

음악평론가 윤중강씨는 "풍류의 기본은 영산회상이다. 한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이 더 자연스럽고 진중하면서 깊어지길 원한다면 영산회상부터 다시 탐구해야 한다"며 "성의신은 정악의 진중함을 줄 위에 실으면서 시대적 소통이 가능한 연주자"라고 설명했다.



성의신

신의성은 현재 KBS국악관현악단 연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대,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대표 음반으로는 '성의신의 해금소리' 시리즈를 비롯해, '신묘장구대다라니' '동다송'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성의신 해금연주곡집>이 있다. (02)703-6599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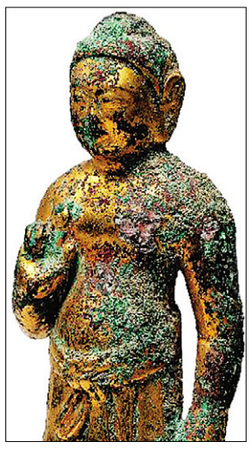
석가모니 일생 그림 · 조각으로 만나

국립경주博 '석가모니의 일생' 6월 6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했다.

석가모니의 수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석가모니의 일생'이란 주제로 국립경주박물관 고고관에서 6월 6일까지 전시한다.

통도사에서 소장 중인 팔상도(八相圖)와 석가모니의 탄생 모습, 성도하는 모습,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 설법하는 모습 등을 모티브로 한 불상도 함께 전시한다.



금동탄생불.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의 진정환씨는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석가모니의 일생을 돌아보고 잠시만이라도 참된 자아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740-7535 이은정 기자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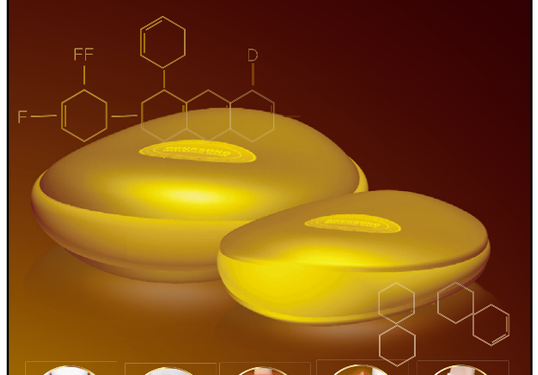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OLD Bulgama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찜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웰빙홈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다구를 찾아서

14 쉬누아즈리

유럽에서 더 환영받았던 청화백자

유럽에 차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610년경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차가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됐고, 1630년대 중엽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확산됐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에 음다풍속(飮茶風俗)의 씨를 뿌린 사람은 찰스 2세의 왕비 캐더린(Catherine of Braganza, 1638~1705)이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시집올 때 지참금으로 홍차와 관련이 깊은 두 가지를 갖고 왔다. 하나는 인도 뭄바이의 포르투갈 영토였고, 다른 하나는 설탕이었다. 뭄바이의 포르투갈 영토는 훗날 동인도회사의 전초기지가 돼 영제국홍차(The Empire Tea)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됐다. 설탕은 당시 동양의 진귀하고 사치스러운 기호품인 차에 또 다른 진귀한 먹거리를 넣어 마시는 영국식 음다풍속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는 귀족부인이라 해도 다구(茶具)의 입수가 쉽지 않았다. 설령 그것을 손에 넣어도 도구를 다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다의 확산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동인도회사가 중국 푸젠성(福建省, 복건성)과 직접 무역을 시작하자,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쉬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가 영국에서도 붐을 이뤘다. 이 바람을 타고 중국식 다실에서 중국옷을 입은 웨이터가 서비스를 하는 티가든(tea garden)이 인기를 끌면서 음다풍속은 크게 확산됐다.





경덕진(景德鎭) 제작.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높이 33.5cm 너비 23cm. 오른쪽은 주자 바닥 사진.

쉬누아즈리는 17~18세기에 바로크, 로코코 양식과 함께 유럽에서 대단한 인기였다. 그런데 쉬누아즈리의 밑바탕이 된 것은 중국의 청화백자(靑花白磁, blue and white)였다.

하얀 바탕에 산화코발트를 안료 삼아 붓으로 문양을 그리는 기법은 이미 9세기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란의 네이샤부르에서 시작됐다. 다만 그 지역들에는 중국과 같은 자토(磁土)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청화도기(靑花陶器)였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질 좋은 산화코발트가 발견되지 않았던 중국에 페르시아산 코발트를 안료로 제공하고 중국 경덕진(景德鎭)의 자토를 사용하는 새로운 상품인 청화백자를 주문했다. 서남아시아인들에게 1300도에서 구운 단단한 자기질 기물(器物)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대량으로 수입된 대부분 문양 없는 청자에 비해 옛날부터 자기들에게 익숙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들어간 청화백자는 아라비아 시장 전역을 만족시키는 상품이었다.

경덕진에서는 이미 송나라 때 청화백자가 시험적으로 만들어졌고 원나라 때인 14세기 전반에서 중기에 걸쳐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14세기 조소(曺昭)가 쓴 <격고요론(格古要論)>에는 '청화백자나 오채(五彩)는 요란스러운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처음에는 중국인 사이에서 청화백자가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것 같다. 오늘날 청화백자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 이집트의 카이로, 이란의 아르다빌, 인도의 델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국 이외의 나라이다. 이는 당시 청화백자가 해외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됐고 중국내의 소비는 미미했다는 것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원래 해외로 운반하는 것은 아라비아 상인들의 일이었지만 16세기가 되면 점차 유럽의 선단이 중국 및 동아시아 무역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네덜란드는 중국 청화백자를 유럽 전역에 팔아 쉬누아즈리를 유행시켰다. 그러나 1709년 독일의 마이센에서 자기(磁器) 생산에 성공하면서, 1800년대 이르러서는 유럽자체 생산이 가능해지자 쉬누아즈리도 점차 내리막 길을 걷게 된다.

이 아름다운 주자는 유럽 소비자를 위해 만든 중국의 초기 수출품이다. 유럽의 그릇 모양과는 유사한 점이 전혀 없고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 디자인 된 것이다. 이 주자에는 포르투갈의 페이쇼투 가문(the Peixoto family)의 문장(紋章)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안토니오 페이쇼투(Antonio Peixoto)가 주문한 것으로 추측한다. 항해가이자 상인이었던 안토니오 페이쇼투는 1542년 중국 광동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중국의 다른 해안을 통해서 입국했고 일본까지 갔다. 귀국길에 경덕진에서 만든 주자를 이란에서 뚜껑과 부리에 은으로 덧입혔다. 주자 바닥에 '大明嘉靖年製(대명가정년간1522~1566 제작)' 라고 명기 돼있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5 벽송사 딱새



초여름 햇살이 따갑던 어느 날, 함양 벽송사. 선방 처마 밑으로 딱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딱새는 금방 잡은 먹이를 입에 물고서 다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주위를 살폈다. 처마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지붕으로, 지붕에서 다시 처마 밑으로. 입 안의 먹이는 새끼들 것이었고, 둥지가 알려질 것을 염려해 곧장 둥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다.

마침내 의심을 떨친 어미 새가 처마 밑에 숨어있는 둥지로 날아들었다. 새끼들은 제 얼굴보다도 크게 입을 벌리며 아우성이었다. 먹이는 그 중 한 마리의 새끼만이 받아먹었다. 어미 새는 어디론가 또 날아갔고, 시끄럽던 둥지는 선방처럼 고요해졌다. 고요한 선방, 고요한 둥지. 딱새의 시절도 치열하기는 한 가지였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가 금광명참을 묻다 (金光明懺)

삽화는 송나라 효종 황제가 약눌 스님에게 '금광명참'에 대해 묻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황제와 스님과 대신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판각돼 있다. <금광명경>은 중국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대승 불교 경전으로 예전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미묘한 경전으로 존숭 받았다. <법화경> <인왕경>과 더불어 호국삼부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효종은 약눌 스님에게 "무슨 연고로 해마다 금광명참을 닦는가?"라고 물었다.

스님이 대답하기를 "대범존천은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석제환인은 하늘의 제왕 가운데서 33천을 거느리고 하토에 임하는 천신입니다. 또한 사대천왕은 함께 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천왕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모든 천신을 위해서 금광명삼매를 설하셨으니 이는 성세(盛世:국운이 번창하고 태평한 시대)의 법전이고 조가(朝家:조정)의 향화인 까닭에 마땅히 해마다 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종이 다시 물었다. "금광명참의 과의(科儀)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스님은 "경 안에 이참(理懺)이 있고, 사참(事懺)이 있습니다. 이참이라 하는 것은 단정하게 앉아서 마음을 궁구하는 일입니다. 사참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는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사해에 앞장서는 것, 셋째는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는 육재일에 경내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깊이 인과를 믿고 마음 속에 밝은 지혜가 남아 있어 영산(靈山)의 부촉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매우 크게 마음이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마다 상천축사에서 호국금광명참법도량을 열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라시대부터<인왕경(仁王經)>과 함께 호국경전으로 채택돼 <금광명경>의한 법회가 봉행됐다. 고려사에는 <금광명경>에 의한 호국법회가 기우제를 위해 31번이나 열린 사실이 기록돼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금광명참(金光明懺).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사)대한불교법화종

북한산 무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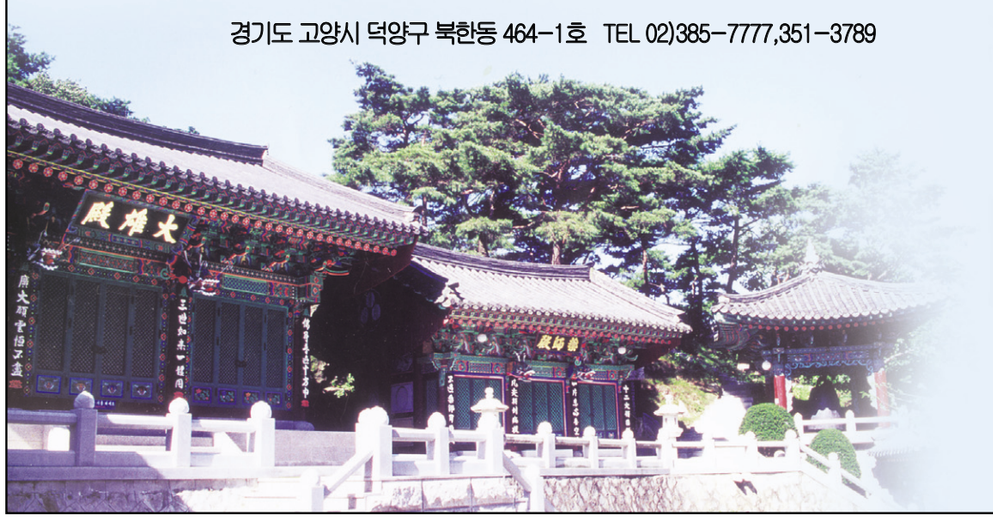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1호

전통사찰 북한산 무량사 주지 무량

신도회장 김영애 부회장 송경자 · 서상임

총 무 정미자 재 무 송순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호 TEL 02)385-7777,351-3789





항/상/건/강/을/지/켜/가/는

『영농조합법인 정품 인삼제조창』

생 산뿐만 아니라 항상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소 비자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을 지켜가는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광 고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건 강지킴이로서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마음까지 이루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삼, 홍삼, 수삼, 건강제품을 찾을 땐 "풍삼정"

귀하신 몸, 소중한 건강 "풍삼정홍삼"으로 지키십시오.

어디서나 온라인 인터넷에서도
"풍삼정"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ttp://www.insammaket.com

■ 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 / 054)636-2174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범음대학)

출가자(비구니, 행자)구함
본 도량은 육지장보살을 모신 바른 지장기도도량으로써 비구니 스님 및 행자를 구합니다
· 자 격 : 20~30대, 학력, 지역 관계 없음
· 수행 후 주지 임명 (수행중 승려증 발급, 독자운영)
· 출가 하실분만 전화바랍니다. (장난전화 절대사절)
010-2599-6020

혜봉스님 비법전수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전수비 99만원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11-9585-4908

사주 꼭 배우고 싶은 분!
전직 대학강사로 15년 경험있는 선생입니다(女). 특히 불교를 믿는 보살님이나 비구니스님 환영합니다.
장소 : 관악구 봉천6동 낙성대가정집
기간 : 1년 정도 소요
02)876-8034
010-3732-4847

심령치육 구병 퇴망
영가장애, 알수 없는 병, 빙의, 신병, 이름 모르는 병
불보살의 자비와 대우주법계 광명으로 영가님의 해탈성불
소원성취
무독귀왕사 강명 합장
010-4740-3001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비구 부전스님 구함
▷45세 미만, 마산
016-428-666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님도 모십니다
▷부산
010-830-95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342-3372
010-3738-0338

정다원 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남여 대기자 각 500명
방배동 10년 경력
전화요청시 사주역학 무료로 알려드림.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19-12 관음빌딩 302호 (이수역 5번)
02)588-6118
010-2914-6118

직원구함
(도서출판사)
만20세부터 45세까지의 여직원을 구합니다.
▷급여는 면담 후 결정
010-3094-7774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대덕사
010-9219-7695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도서지역)
법납 10년이상 권속있는 스님 및 비구니 스님 꼭 필요한 스님만 전화하세요
011-663-4893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17-324-162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9308-9919

자기 도량처럼 출퇴근하며 포교,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
018-382-3448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5월 27일 (목) 오후 2시
6월 3일 (목)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3개월 과정 -기초가 없으신 분은 보강해 드림
※ 명리, 육효학 기초반 (주 · 야) 모집
백암역리연구원
02)597-1101. 011-9150-2284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금강타워 빌딩에서 우회전 직진 150m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작은 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 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새벽,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으로 회향을 하실 때까지 가족으로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거제
010-7593-2355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멘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념학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홍련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2리 153번지

위 사찰은

前 주지 청강 스님께서

열반하셔서

귀 종단을 탈종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토 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강원 강선 건물 1동(2층)
- 부지 : 30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강원 주문 건물 3동
- 부지 1300평
- 가액 :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2억

- 위치 : 수도권산사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4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옛 사찰 터

- 대지 평수 : 606평
- 위치: 부산. 울산 간 중간지점
- 토목(석축) 완료
- 경관 아주 수려, 전망 최고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1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야간)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가밀집지역
  5층건물 중 2층
  (옥상, 텃밭 30평 사용)
- 평수 50평(법당 20평, 단청, 탱화 A급)
- 삼존불, 원불 60불, 인등 500
  주지실, 공양간, 해우소,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 A급. 현 법회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8954-803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 대지 320평, 200평
- 2층 법당(급 단청 되었음)
  1층 요사채 60평
- 삼성각(조립식) 20평
-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 밭 450평, 요사채 27.5평
- 가액 : 5억 5천만원(절충가능), 교환가능

010-6436-988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포교원하실분

- 현포교원(60평)인수하실분
- 가액: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 위치: 시장입구 전망최고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통입구
- 지하철 2호선, 구명.구남역에서 3분거리

주간: 051-338-8607
폰 011-9515-8606
야간: 051-338-8606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 지하철 7호선 용마산 역세권
- 4층건물에 4층, 40평
- 냉난방 등 모든 시설완비
- 아파트 밀집지역
- 가액: 시설비 + 전세
  합 3천만원
- 월 70만원(관리비포함)

010-2640-8133

포교원운영하실 분

- 위치 : 경남 마산시
  산호동 1층
- 법당 1칸, 방2칸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300만원 ,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605-01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대지 40여평
- 건평 20여평
- 위치 전망 양호
- 교통 주차 편리
- 집기일체양도
- 가액: 7천 5백만원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견불, 와불 관터
- 대지 300평, 700고지
- 요사채 양옥, 1층 35평
  2층 법당 15평
- 천리행용 백리안계 해동제일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

011-335-638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 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천구 ● 평수 70평
- 법당, 요사채3칸,
- 욕실 주방, 온수보일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경비 5천만원
- 스님 공찰 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시장통
- 2층 60평 ● 법당 30평
- 방3개, 주방 大.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 가

011-9342-9794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5800-3210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부개1동
  대로변 2층
- 실평수 3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90만원

011-729-6011
032)614-6011

사찰터안내

-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70번지 외 4필지
- 평수 : 총 3,352 (1,005평)
- 토지정리 완료, 청암면 소재지
  가기전 10리 산속
-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으로
  작은 계곡이 접하고 있는 정남향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82-6760
011-9512-67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원주역 도보 10분거리
- 5일풍물시장중심
- 건물 81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법당1(사용가능),
  거실1, 방3, 화장실 2
- 노천 대형 주차장 완비
- 스님 건강 증진. 포행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지방 불사 관계로 급 양도
-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010-7191-26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2층 30평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 주택가 횡단보도 신호등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온천천 공원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010-2446-262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동구도동
- 법당, 방 산신각
- 해수관음도량
- 하천부지, 터밭사용가능
- 전세 5천5백만원
- 몸만 들어오면 즉시 법회가능

010-2281-3577
053)985-1815

포교원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 상가건물 1층, 전체 2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세 37만원

010-3107-124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 1동 531-1번지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2층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삼존동불, 소불168불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주차 편리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전 3천평)
- 법당 30평(삼존불)
- 좋은 약수샘 있음 ● 가액:1억

054)672-8231
010-9004-72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중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대산면
- 대지 605평, 건평 약 100평
- 법당 60평, 요사 30평
- 다용도 창고 10평, 방 4칸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775-2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사림동
- 평수 50평 ● 모든시설 완벽
  (신설2개월, A급) 합니다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4천만원 (시설+전세) 월 6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6436-80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수유동화계사거리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평수 : 54평. 2층건물 중 2층
- 1층 허가된 주차장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주차장 완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1천 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자안내(전세)

- 위치 : 소백산 내 관광지임
- 전, 임야 5000평
- 암자 1, 2층합 약 25평
- 야외 석조불조성
- 부동산사절

011-481-0966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55)632-384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동리
- 임금산 아래 토굴터
  암자자리, 임금산 아래
  항시 물이 고여 있음
- 평수 : 600평
- 가액 : 3900만원

055)572-7722
010-3256-0408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 암자 적지
- 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 ×
  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 절충가능

011-644-2563

토 굴 안 내

- 위치: 지리산 실상사 인근
  오염없는 국립공원 인접
- 일자봉. 토체안대 (견성골)
- 포장완료
- 대지 약 150평, 건물 20평
- 가액: 1억(절충가능)

011-448-07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국도변
- 대지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 (단층양옥)
- 법당 20평(아미타 삼존불)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3천만원
- (은행융자 7000포함)
- 전세 가능(1억 1천만원)

010-8675-8011
055)328-488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산시내
  대로변에있음
- 상가건물내에 법당주불은
  관세음보살 .산신.칠성탱화
- 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시설비 4백만원
  월세 삼백이십만원

010-3780-61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 종각 약 1평
-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 가액: 4억 5천만원(조정가능)

010-3112-35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연못, 옆산, 텃밭
- 총 320평
- 임대 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1억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창수
- 대지 : 330평
  농사가능 (농기계 완비)
- 방 5개, 큰 법당 1, 문수전,
  산신각 1, 지장보살입상(3m)
- 가액: 상담 후 결정

054)733-3858
010-9377-2356

전망좋은 전원주택

- 위치: 양평 청운면
- 아름다운 산속,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
- 대지 198평 건물(조립식) ,
  29.8평 외 1필지 38평 (무료증정)
- 가액: 3억 7천만원(가격절충)

010-3088-3133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납골당터. 절터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 평수 7700평 (분할가능)
- 가액: 평당 1만원

010-8753-88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월평동소재, 유성온천 자동차 5분
- 3층건물 중 1층 40평
- 법당1, 방사3, 주방1, 화장실 2개,
- 삼존불, 약사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 지하 약 40평 : 창고로 사용 가능
- 보증금 1000만, 월40만, 시설비 1200만
- 월평역 지하철 5분거리, 생활상담 최적
- 포교당 5년차, 소임관계로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7227-60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55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1,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사찰안내

- 비구니 스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중심, 대지 67평
- 건평 35평, 큰방 2개, 작은방 2, 화장실 2
- 집안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1억 4천 3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 대지 5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 25평
- 3층 옥상 삼성각
- 아파트, 재래시장, 여성복지관 인접
- 교통편리, 법단 원목시설
- 가액 : 4억 1천만원

010-8941-1484



길을 묻는 이에게

이것저것 탓하다가 언제 저승 가서 저승공부 하렵니까!



그림 · 최주현

안팎으로 끄달리게 됩니다

문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팎으로 끄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을 잡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스님, 다시 한 번 이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주인공' 하는 건 한 시스템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맡겨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아프게 한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멍에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서 입력된 것이 다, 팔자 운명이 다 무너지고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업보가 무너지고 화산지옥이 무너지고 화탕지옥이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어떤 노래를 카세트에 넣었다가 거기 또 다른 노래를 넣으니까 앞서 노래한 것이 지워지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이해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는 데 이해가 가야만 되겠어서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의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때를 맞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놔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을 때에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집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새로 입력을 해 넣으니까 새로 새 살림 하듯이, 내 머리가 개운하게 맑아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뒤범벅이 돼서 끓이지 않고 순서껏 돌아가면서 잔잔하게 물이 흐르듯이 돌아가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내 몸이 건강해지며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내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는 돈도 달아나가다가 '아이구, 요집은 화목한데!'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마음들을 한데 규합해서 돌아가게끔 한다면, 그 모든 게 무너지면서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허공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보더라도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그 마음내는 것도 내 마음내는 거나 둘이 아니니 그거를 둘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둘이 아니게 모든 것을 본다면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사랑 입으로만 외우지 그런 입에 붙은 밥알처럼 그렇게 사랑 사랑 하질 마시고 진짜 행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으로는 세 살 먹은 애도 다 부처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팔십을 먹어도 행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그른가요? 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거보다 한 번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살아서 진정 한번 죽어 보고 싶어요

문 저는 의협심이 많다고 해야 할지, 아닌 꼴은 못 봐 주고 하는 일마다 이러니 저러니 이유가 많은 성격이라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죽는다는 게 한참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서 진정 한번 나라는 것을 죽여 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답 우리네 인생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죽든 말든 아예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습니다.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뎌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긴 사람을 보면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둥근 사람을 보면 둥글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누구 말마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이,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이론이 그렇게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여러분은 똥 누러 가는 데도 이유가 붙고 배고파서 밥 먹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주무시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졸리니까 그냥 잘 뿐이지. 고렇게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 나가는 데에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말입니다. 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뭐 사는데 뭐 저거 하면 거기 이유가 꼭 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창살을 넘나들지 못하는 이유죠.

만약에 누가 틀리면 전자에 그렇게 틀렸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이, 내가 전자의 모자랄 때 모습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쓰면 공부도 좀 유순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보면 하나 끄집고 둘 보면 둘 끄집고 이렇게 하니, 아니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찰나에 들어가는 이런 공분데 그냥 이것 말하고 저것 탓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언제 저승에 들어가서 저승 공부를 하렵니까? 살아서 열반을 못한다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 되죠. 경전을 통해서 통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해탈이라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롭고요. 열심히 해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돌아가질 않아요. 몇 명 안되지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어이없는 질문이겠지만 돈 좀 벌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답 이 돈이 말이요, 돈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죠? 이 돈 하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움죽거려요, 이것도.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걸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거기서 나를 형성시켰고, 거기서만이 지금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내가 엎드러져도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열치열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돈도 슬그머니 나를 쫓아와요.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그냥, 그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도 따뜻

☞22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유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

☞ 1억원 대출시 월이자는 62만원입니다 !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형산새마을금고는 30년 전통과 (설립일1980.01.26) 우수새마을금고 내부부장관 표창(제4856호)등 여러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사찰대출 전문 새마을금고입니다.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않나요?
대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하여 올라 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는 변동금리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갚을수 있나요?
조금씩 갚으셔도 되고 갚은 만큼 다시 빌릴 수도 있으며 특히 대출금을 갚을실때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출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나요?
법원등기비용과 3억이상 대출시 공인감정료 이외엔 출장비, 대출수수료, 꺽기등의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형산(구.죽도2동)새마을금고 본점

대출지역 : 전국
대출형식 : 담보대출
대출금액 : 3천만 이상
대출금리 : 연7.2%~7.6%
대출기간 : 3,5년(연장가능)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의 새이름-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 주 법 달
주 지 정 문
총 무 현 담
재 무 정 여
신도회장 김경희

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의식들에 끄달리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한 데로 고이고, 내가 아내와 부부 사이를 맺었어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서 부부가 따뜻해지지 '어휴, 저거 또 뭐라고 그럴까 봐….' 하고 하지 못할 말이 있으면 벌써 그건 참다운 부부가 못 돼.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짐승 하나를 내가 건진다.' 이럴 때도 내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 줘야 그걸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소 속에는 소가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뱀 속에 뱀이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합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도 될 수 있고 뭐, 모두 다,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미생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도 나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아, 고개가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린 채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고개는 이럭하고 나한테 공손히 절을 삼 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나같이 무지렁이 같고 모자라는 사람 앞에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절을 하니 세상에 저렇게….'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선 생각을 하곤 "고개는 왜 그렇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갔어요. 버스 간에서 버스를 타다가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그냥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데 그냥 고개가 휘딱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개가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슨 무얼 하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요새 사랑 사랑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천해서 죽겠어요. 사랑을 한다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둘이 죽자사자하고도 다 돈 뺏어 가지고 도망을 안 가나 사람 죽이고 가질 않나, 이런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만 볼 수 있고 둘이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뭐 나다 너다 할 거 없이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 병이 낫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날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스님은 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가 없이 돈을 누굴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이기 때문이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모두들 부자가 되기만을 고대를 하고 그러는데, 부자는 아, 우린 지금 철새처럼 이렇게 다녀도 부자예요. 나는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벌써 어디 가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주머니 털어 줘야 됩니다. 주고 다녀야지 이놈의 게 누가 주면 금방 나가고 주면 나가고 주면 나가고, 이러니까 들어오지 내가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쌓아 보세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그 도리만 알면 누구 마음에 돈 주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엄청나게 생겨서 장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 잘되니 좋지, 나 돈 생기니 좋지, 가정 화목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이게 세상 살 맛이 있는 거지요. 뭐 돈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다녀야 부잔가요? 나는 안 쌓아 가지고 다녀요. 왜? 전부 내 돈이니까. 아, 그런데 왜 그걸 무겁게 가지고 다닙니까, 글쎄? 그러니 그런 진정한 세상 맛을 알고 살고 싶으시다면 이 공부를 착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스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문 스님, 제 아들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스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아플 때는 관하기도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관도 안되고 스님 생각만 간절합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겠죠?

답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딴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보자는 거지, 여러분의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보전하고 이끌어가고, 위로는 부모님, 조상님의 묵은 빚을 갚고,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햇빛을 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여러분이 능력을 기르지 않고는 자식들도 뿌리가 깊게 박혀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에게도 능력의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혈통이라는 것도, 핏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이 모든 혈통과 피 전체가 전부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뭉쳐진 업이,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악이고 선이고 그냥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화내고 뭐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자의 과거에 살 때의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건전치 못하고 이리 왕 저리 왕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다 지닌 인과로 뭉쳐진, 개수로 따질 수 없이 많은 그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과 의식, 생명 그것들이 모두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간단한 예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이럴 때 '야, 너희들! 한마음 주인공의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이 다리가 점차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 여기 안 와도 스님은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도 만약에 한 번 그걸 고쳐 준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는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그렇게 나았다 뿐이지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다음에 누구가, 자식이 그렇게 되거나 부모가 그렇게 되거나 내 몸이 그렇게 되거나 일가친척이 그렇게 되거나 해도 어떻게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까짓 것 한 번 낫게 해 주나마나지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 도리를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간다 해도 30%나 40%를 내가 병원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60% 70%는 반드시 여러분이, 자신이 그걸 충당해야 한다는 그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게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문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구하기 힘들고 애인은 떠나버리고 살 맛이 안 납니다.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화만 나고 짜증만 납니다. 한 세상 즐겁게 살고 싶은데 스님,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에 바로 이렇게 되지요. 정자, 난자는 바로 엄마, 아버지를 비유한 겁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에 근본적인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거기 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계합이 될 때에 바로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바로 과거의 자기가 살던 그 의식과 핵이, 그 마음이 동시에 거기 계합이 돼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서 수십억 마리가 한데 모일 때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딱 하나가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그 자체가 왜 형성되는 그 몸에 올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 때에 인으로 인해서 과가 뭉쳐진 이 몸뚱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의 속상한 거, 가난이 오는 거 또 괴로움이 오는 거, 고독함이 오는 거, 허무감이 오는 거, 또 병이 생기고 서로가 부딪치고 아픔을 겪는 이 고통이 바로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그 자체 악업, 선업이 뭉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찰나찰나에 돌아가면서 그것이 자꾸자꾸 형성돼서 자꾸 그 마음이 나오니,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현재의식으로 나오니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쉬어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핵과 에너지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그 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데 속지 마라 하신 뜻은 모든 거는 네가 지금 네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 공했느니라. 전체 일체가 다 공했으니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를 속지 말라. 모든 것을 합해서 개별적인 하나가 바로 주인공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의 돌아감이 바로 주인공이니라. 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공한 데다가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바로 놓고, 맡겨 놓고 '당신밖에 나를 형성시킬 수 없었고, 당신밖에 나를 이익하게 이끌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내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일면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기고 살아라. 그런다면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 가지고 들어오려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이 말이 틀리걸랑 항의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다 없습니다. 툭 터졌어요. 툭 터졌으니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요, 삼재가 드는 거 운명 팔자 이런 것도 다 없는 겁니다. 공했어요. 어디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병도 불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그대로 여여하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며 바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내 몸뚱이 인으로 인해서 과가 생긴 그 악업, 선업의 생각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이 돼서 나고 들 때에 32상이 구족하고 32응신이 다 모습을 화해서 바꿔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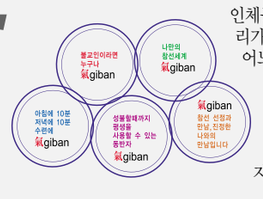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오히려 감사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천안함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

수많은 억측과 가설이 난무했던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의뢰에 의한 외부폭발로 밝혀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안보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루됐다는 조사결과 발표가 나옴으로써 당분간 남북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확보됨으로써 유엔 안보리 회부와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남측의 무력시위, 대북심리전, 남북경협 축소,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과 관련한 움직임으로 한반도 정세는 초긴장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남측의 강경조치에 맞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전면 동결하고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거나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17일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서 '북 관련설'을 부인했던 북한이 합조단 발표와 동시에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 것은 남측 조사결과를 부정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또 다른 의도는 북의 공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경우 수뇌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5월 3일자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미대화의 흐름에 근거하여 올해 1월 당사국들에 새 협정의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북연루설'은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강릉 잠수정 침투 때처럼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시인 · 사과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발할 것이다.

검열단 파견 제의를 남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측은 이미 '과학적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나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서 통보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한국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냉전시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국지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문제가 정세를 지배할 경우 핵무기문제 해결의 초점을 흐리게 할지도 모른다.

이번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남측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측에 돌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해나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북측도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하면서 위기 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북한보다 수십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남측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 군사적인 맞대응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갈등을 지속하면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세를 보고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국지적 사건들이 정세를 지배할 경우 정작 북한 비핵화를 멀어지게 하고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벌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수산 스님
동국대 강사

추억의 저편 뒤안길

아버님이 1919년생이기에 해마다 삼일절만 되면 아버님의 연세를 따져보고 그리워하게 된다. 요즈음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한참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에 우리와의 인연의 끈을 놓으셨으니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글쎄, 출가한 스님은 인연에 좀 더 의연해야 하겠지만 아직 수행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나 보다.

강원도 고성에서 월남하셨던 아버님께서 마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보셨고 동생이 5년 터울인데, 쉰이 넘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자식에 대해 지극했을 당신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고 교수님께 전해 듣길,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끔 자랑도 하셨다는데, 과묵하신 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버님이기에 당신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

아버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 즈음은 내가 건강 때문에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있을 때였기에 말년의 아버님과 줄곧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느라고 가족과 떨어져 지냈는데, 생각해 보면 귀한 아들 보내고 그리워했을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배려된 인연의 사슬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나 홀로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드렸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정신이 맑지 못한 상황에서도 굳이 법당에 가서 참배하시는 아버님을 당시로서는 깊은 생각 없이 부축만 해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의 깊은 신심에 머리 숙이게 된다. 내게도 그런 신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태신앙으로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 불교학과의 입학과 더불어 본격적인 나의 삶이 되었다. 모두가 아버님의 제자들이셨던 교수님들이 왜 그리도 어려웠던지, 남들처럼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는 것이 내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공부할수록 생각나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은, 한 번도 아버님과 불교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 아팠다. 그렇게 겁 없이 불교학을 택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또한 당연하게 아버님과 같은 유식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지만 아직 한 번도 나의 선택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다. 다만 당신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까지 노력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은 계속될 것이다.

마흔 중반의 나이에 출가해 대승원을 지켜 오신 어머님이 벌써 올해 팔순이시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사건들을 무난히 잘 넘기시고 이제 수원에서는 인정받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신 당신의 신심과 열정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그 해 집안에 생긴 큰 우환은 어찌 보면 대승원을 지금의 도량으로 되게끔 배려된 인연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게 출가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평소의 생각보다 훨씬 빨랐지만 모두가 나와 부처님과의 인연이기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니,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해결된 것 같아 인연의 엄연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스님 · 불교학자로서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법당에서 강의실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그렇지만 두 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당신들의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그러나 그 무게 때문에 언제나 곁길에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마움이라고 생각한다.

초파일 준비로 바삐 보내는 요즘 갑작스런 원고부탁으로 기억의 저편 뒤안길에서 아버님을 만나 뵈니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련한 기분이다.

웃으실 때 언제나 소리 없는 파안미소를 지셨던 아버님과 엄격함과 자애로움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세월의 덧없음에 많이 약해지신 어머님께서 늘 건강하시어 자손들의 효도를 오래오래 받으시길 기원한다.

사 설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천안함 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는 냉각을 넘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민들은 북한을 응징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다 남과 북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 발사가 천안함 침몰의 근본원인일까. 대결을 해소하지 못한 한반도의 업보이다. 평화가 간절하다.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으며,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낭독됐다. 북한의 사찰에서도 발원문이 낭독됐다.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토가 될 때까지 남과 북(북과 남)의 사부대중은 불국정토를 향하여 발걸음 맞추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험난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물러섬 없이 우리 손으로 상호존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오세훈 ·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합장으로써 발원문에 동참했다.

어떤 전쟁이든 안하느니만 못하다. 전쟁상태까지는 아니어도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면 먹고사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 응징과 책임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의 실현은 지금 우리 불자들의 긴급한 기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4대강 중단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가 5월 17일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선원 · 강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종회가 열리는 기간이 아님에도 성명을 발표한 것은 4대강 개발의 폐해가 너무나 크고, 매우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매섭게 질타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이 시급함에도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지한 숙고를 결여하고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종회는 또 "진정한 중도는 '바름'을 의미하며, 곧 균형과 조화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정부의 중도실용(中道實用) 정책은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한 수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 대정부 성명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톤이었다.

지금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종단 집행부와 사부대중에게도 "생명살림과 대자대비심의 발로에서 무분별한 4대강 사업의 중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 권고를 계기로 집행부 또한 더 적극적으로 4대강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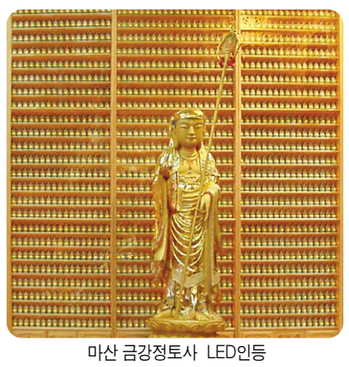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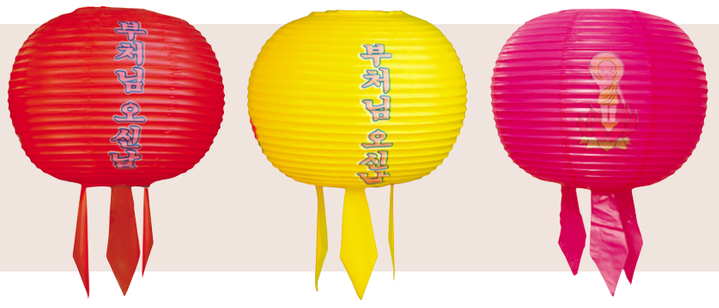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팔각 봉축전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NH NongHyup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서울농협

농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행복을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서서울농협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서서울농업협동조합

본 점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 02)302-4321~3
연 수 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544-4 전화 : 031)582-9912
유통분사 | 서강본점 02)3144-5253 응암점 02)302-1125
하나로마트 | 사직점 02) 725-4021 신사점 02)388-8925

망원지점 | 338-6711 신사지점 | 388-8921 홍은지점 | 394-0133 상암지점 | 375-2762 연서지점 | 383-3045 갈현지점 | 383-4471 수색지점 | 376-0315 홍제지점 | 732-2892 홍대역지점 | 337-6896 광흥창지점 | 324-2031 연희지점 | 326-3961 사직지점 | 725-4571